

北韓
'80年代 情勢評價와
'90年代 展望

研究責任 朴一聖
(內外通信 論說委員)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급격한 世界情勢의 변화 특히 東歐 共產圈의 改革・開放化와 한민족통일방안의 實現을 모색하는 時點에서 80年代의 북한실정을 客觀的으로 評價하며 90年代 북한의 政策方向을 豫測코자 委囑했던 특수과제 研究結果입니다.

이 報告書 내용이 북한의 政治・經濟・軍事 등 관련분야를 研究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報告書에 수록된 내용이 반드시 當院의 見解를 反映하는 것은 아님을 添言합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目 次

I. '80年代 北韓情勢判斷과 '90年代 展望 (佐藤邦昌)	3
1. 머릿말	5
2. 「驚異的인 轉換」?	7
3. 「金正日後繼體制」의 問題点	12
4. 中國・蘇聯에 대한 對應과 「우리 式」	19
5. 맺음말	25
II. 北韓 : '80年代 情勢回顧와 '90年代 展望 (朴一聖) — 南北韓 統一政策을 中心으로	27
1. 問題意識	29
2. '80年代 北韓의 統一政策과 關聯情勢 回顧	29
3. '90年代 基本情勢 展望과 問題点	38
4. 韓國의 對應策	40
III. 北韓의 人民軍 (塚本勝一)	45
1. 머릿말	47
2. 北韓人民軍의 現狀	48
3. 北韓人民軍의 戰略	55
4. 北韓人民軍의 核	58
5. 앞으로의 展望	61
IV. 北韓經濟의 基本性格 (玉城素)	63

I. '80年代 北韓情勢判斷과 '90年代 展望

佐藤邦昌
(北韓問題專門家)

1. 머릿말

平成元年(1989年)4月4日字 평양發 共同電은 이날 있었던 日本社會黨 訪北團長 田邊 誠과 金日成과의 會談內容을 보도 하였다. 共同電에 의하면 金日成이 3月 30日 日本國會에서의 竹下首相의 「對北韓政策에 대한 새 見解」를 評價하면서 「日本當局의 一部人士가 좋은 發言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 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共同電은 「兩國間の 關係改善에 北韓側이 前向的인 姿勢를 보였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4月 5日字 요미우리新聞은 「『北의 變化』 好感— 外務省首腦」題下の 記事에서 「北韓의 金日成主席, 許鏊政治局員(朝鮮勞動黨 書記)이 社會黨訪朝團을 통하여 보여준 反應은 「문을 녹크하여 방안이 보인것 같은 느낌이다, 「反應이 있었다. 兩國關係의 解氷의 조짐으로서 前向的으로 받아 들여진다」(外務省首腦)며 政府는 好感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편 外務省에서는 『이번의 關係改善의 조짐이 急進展할 可能性은 적다』고 指摘하는 慎重한 見解도 뿌리 깊다」고도 傳하고 있다. 外務省의 首腦級이나 實務側 모두 「前向的」과 「慎重함」의 差異는 있지만 이번일을 日北韓係改善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는 報道였다.

그 뒤에도 日北韓關係改善에 관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4月 11日의 衆議院外務委員會에서의 宇野宗佑外相의 答辯에서 北韓에 대한 「國家承認」以前에라도 「渡航制限解除」와 「在外(連絡)事務所」의 相互設置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示唆的發言이 있었다. 게다가 이르면 금년 9월에라도 金丸信 前副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 外務省高官도 포함된 — 自民黨代表團을 積極的으로 平壤으로 보낼 움직임도 있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매스컴의 論調나 日本當局의 對應報道를 보면 「北의 變化」라는 觀點이 새삼스럽게 지나칠 정도로 重視・強調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社會黨 — 朝鮮勞動黨의 라인에서 그려 보인 시나리오에 약간 들뜬 部分이 있는 것 같다. 물론 大部分은 冷靜한 姿勢를 보이면서 이 기회에 「第18 富士山號」 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는다는지 北韓을 國際社會에 끌어 내하고자 하는 意向들이 있다는 점은 充分히 理解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오랫동안 北韓의 內・外動向을 지켜 보아 온 眼目으로 보더라도 納得할 수 없는 問題點들이 있다. 지금 日北韓關係의 改善에 나서는 것은 나서지 않은 것 보다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時期나 條件등 現在 提示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日北韓相互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不明確하며, 平和的 友好關係가 樹立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短期的이거나 또는 그 어느한쪽의 便宜的인 것이어서는 안될것이다.

그 때문에라도 여기서는 우선 北韓이 가지고 있는 價値觀, 思考方式 및 行動樣式등을 비롯하여 「體制」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意味나 背景을 잘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은 現在 社會主義體制아래 異例적인 「父子權力世襲」에 의한 「金正日後繼體制」 구축에 必死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例컨대 1983年 10月の 「버마爆彈테러事件」과 1987年 11月の 「KAL機爆破事件」등과 같이 人道的 見地에서나 西方世界에 있어서나 “猛毒”의 要素들을 體質적으로 內包하고 있다는 것 역시 周知의 現實인 것이다.

北韓의 경우는 社會黨이 그려보인 시나리오나 一般의 「情緒的」, 「狀況的」 理解, 或은 「與黨街의 政治的 論理」따위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相對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驚異的인 轉換」?

現代의 社會主義國家에서 「變化」를 찾아 내려면 毛澤東死後에 鄧小平, 胡耀邦 등이 「4大現代化」와 「改革」을 提唱한 것이나, 브레즈네프(안드로포프를 除外하고), 체르넨코 死後에 고르바초프가 登場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展開한 例와 같이 後者が 前者에 대하여 明確한 安티·테제를 提起한 것에만 구애받아서 는 안될 것이다.

金日成의 경우, 지금도 健在하며 北韓內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權威者」요 「絶對的인 統治者」로서 君臨해 오고 있다. 過去 數次의 「살아 남기」를 건 權力鬭爭과 그 뒤의 「獨裁者」의 榮華를 쌓아 올린 「主體思想」, 「金日成主義」를 스스로 否定·變革시킬만한 動機는 없지만, 살아 있기에 비로소 外的 刺戟에 대한 「生體的 反應」으로서 어떠한 「變化」를 받아들여 가게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狀況·條件에 「個體」인 生命을 「適應」시켜 나가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北은 變化했는가 살펴보았을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은 위의 「生體的 反應」과 같은 形態로, 이미 1984年에 그들 스스로 말하는 「커다란……驚異的인 轉換」을 指向한 움직임이 現實的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 「轉換」方針은 北韓固有의 「排他的 反應」과의 사이에 軋轢이 생겨 順調롭게 進展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現在까지 試行錯誤的인 昏迷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現在의 北韓에는 分明히 1983年까지와는 다른 「轉換」的 要素가 不充分하나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意味에서 限定的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 부정적인 반응의 근거는 北韓이 限定的이나마 「變化」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84年이라는 「오래 된」 時點의 일로 그 以後 5年間은 같은 水平面에서 맴돌고 있어, 말하자면 이렇다 할 상황 變化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最近 새삼스럽게 「北의 變化」를 들먹이는 것은 빗나간 것이요 無意味할 뿐 아니라 中國・蘇聯등의 「改革」, 「페레스트로이카」등과의 類似를 想像할 危險이 없지 않은 妙한 誤解마저 낳게 될 것이다.

1984年 6月 20日字 로동신문은 長文의 論說 「우리 黨의 위대함에 대한 信賴에 기초한 不敗의 統一과 團結」을 發表하였다. 이 論說은 「친애하는 金正日 서기가 경애하는 主席님의 뜻을 이어 받아 우리 黨을 지도하는 今日……」, 「金正日서기의 思想・理論은 革命偉業繼承時期에 提起될 모든 理論・實踐的 問題들에 완벽한 回答을 주는 指導的 指針, 共產主義未來에 있어서도 生命력을 가지는 偉대한 思想이 되어 있다」, 「우리 黨中央은 黨과 國家의 全般的인 事業을 튼튼히 틀어 쥐고……金日成主席께서 구상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따라 革命과 建設을……指導하고 있다」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6·22 『조선중앙통신』) 또 同日字 평양방송은 上記 論說과 有關한 해설에서 「黨과 國家의 全事業에서 커다란 轉換이 일어났으며……경이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金正日同志의 혁명적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金正日同志의 精力的인 指導는…… 끊임없는 전환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背景으로 하여 金永南外交部長은 1984年 7月 10日 평양주재 宗克文 中國大使가 主催한 「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締結 23周年祝賀宴에 參席하여 「조선인민은 최근 中國革命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中國人民의 生活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中

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환은 中國共產黨의 路線과 政策이 中國革命의 具體的 實情과 中國人民의 利益과 念願에 全面的으로 合致해 있다」고 최대한으로 칭찬하는 인사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또 金日成마저도 1984年 5月 16日~7月 1日까지의 蘇聯·東歐諸國 巡訪에서는 검은 목단이服의 「黨服」이었던 것이 歸國後인 7月 17日의 잠비아 代表團의 接見에서는 「부드러운」 洋服차림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당의 행사등에서도 洋服을 常用하는 「轉換」된 모습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위의 金永南外交部長의 발언은 北韓이 中國의 「4大現代化」, 「鄧·胡路線」에 全面的 긍정을 表示한 것으로서 큰 意味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金正日이 1983年 6月 1日부터 12日까지 中國을 「內部訪問」(秘密訪問이라는 뜻인데 1983年 6月 8日 中國吉林省 延邊人民放送이 이를 보도하였음) 했으며, 鄧小平, 胡耀邦등으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고 歸國한 直後인 6月 15日~17日의 黨中央委 6期7次會議에서 中國의 「4大現代化」와 「鄧·胡耀邦」을 호되게 批判·非難하는 「歸國報告」를 하였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中國側의 發說. 中國側은 同中央委 會議內容을 이미 同月下旬에 入手하고 있었다고 함)

北韓은 이 1984年の 「커다란...경이적인 전환」에서 具體적으로 어떤 內容을 指向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1984年 1月 10日에 開催된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와의 合同會議」와, 1月 25~27日에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7期3次會議」등 兩會議의 決定事項을 實踐·具體化하는 일이다.

이 두 會議에서 決定한 重要問題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從來에 「全斗煥一黨은 南北對話의 相對로 삼지 않는다」고 해오던 方針을 變更하고 韓·美兩國에 대하여

- ① 美國・北韓間의 平和協定締結
- ② 駐韓美軍의 撤收
- ③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採擇

등을 위한 南北韓과 美國間의 「3者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案하였다. (1・10 「合同會議」에서 採擇)

(2) 「南・南協力」과 「對外經濟事業」을 活潑化하고 「앞으로 5~6年사이에 貿易高를 現在의 10倍以上으로 늘린다」

(3) 國交가 없는 資本主義國家를 包含하여, 「經濟・技術交流를 活潑히 하며」 「經濟合作(合營事業등)을 相互利益의 原則에 기초하여 推進한다」

이들 決定事項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가 1983年까지의 北韓의 路線에 抵觸되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決定이 순조롭게 實踐・具體化된다면 아마도 北韓에 「驚異的인 轉換」을 오게 할 契機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게 進展되지 않았으며, 「轉換」 路線이 지닌 從來路線과 의 異質要素와 北韓의 「革命이데올로기」優勢의 特異體質이 相互反應하여 「알레르기症狀」的인 昏迷를 일으켰다. 「3者會談」提案이 採擇된 것은 1月 10日의 「合同會議」에서였는데 이 날 平壤의 各新聞들은 金日成이 南北對話에 관하여 「今日의 情勢로는 對話는 無意味하며 또 그럴 必要도 없다」고 말한 發言을 실었다. (루마니아共産黨機關紙 「스쿠티아」代表團에 대한 說明, 1983年 11月 16日)

北韓 各機關紙에 記事를 동시에 掲載한다는 것은 黨中央委이데올로기擔當部門(者?)의 指示에 충실히 따른 결과이며, 全斗煥大統領에 대한 非難을 담은 金日成의 發言을 意圖的으로 1月 10日에 때 맞추어 發表한 것이라면 이것은 一

種의 사보타아지行爲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1月 20日字 로동신문은 「3者會談」의 3議題中에서 ① 美・北韓間의 平和協定締結, ③ 南北韓間의 不可侵宣言採擇의 2개項을 「格下」시키고 「3者會談 提案의 목적은 駐韓美軍의 撤收에 있다」고 主張한 論說 「祖國統一의 活路를 여는 救國對策」을 掲載하였다. 그 意圖하는 바는 戰爭繼續狀態下에 있는 「軍事分界線」을 國際的拘束力을 가지는 「平和協定線」으로 變更하는 것에 反對하고 「南北不可侵宣言」을 拒否하며 또 韓國側의 軍事配置에서 「駐韓美軍」을 撤收시킬 것을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論說은 結論的으로 「合同會議」에서 提案한 「3者會談」의 趣旨인 「韓半島 情勢의 安定化」를 「革命이데올로기」에 依한 「祖國統一對策」으로 修正・對替할 것을 要求한 것이지만, 이 밖에도 黨・國家의 公式宣傳媒體인 로동신문과 평양방송을 통하여 「全斗煥一黨」非難을 反復함으로써 結果的으로 「3者會談」이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理解할 수 없는 行動을 계속하였다. 이어서 同年 3月 7日字 평양방송이 「社會主義의 法을 철저히 具現하는 것은 黨政策을 貫徹하는 重要한 保證」이라는 題下의 解説을 실었다. 여기서는 「우리는 美帝國主義와 直接 맞서는 社會主義建設을 하고 있으며 우리 內部에도 敵對階級の 殘黨分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階級の 敵은 저들의 反革命的 策動을 敢行함으로써 黨과 國家의 政策을 中傷하며 그것이 貫徹되지 못하게 하는데 힘을 쏟으며 社會主義制度和 革命의 獲得物을 破壞하기 위하여 온갖 破壞・謀略活動을 다 하고 있다」는 激烈한 主張이 실려 있었다.

同解説論稿에 나타난 그들의 認識과 「階級の 敵」들이 黨과 國家의 政策에 中傷・破壞를 기도할 수 있는 「至近」距離・中樞의 地位에 있다는 것을 示唆한 狀況把握의 切迫感등 「文脈」上으로 보아 同年 1월에 提唱되었던 「轉換」路線

全般과 그 推進派에 反對하는 黨中央委이데올로기擔當部門 中の 「革命이데올로기 強硬分子」들에 依하여 執筆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뒤, 同年 6月 20日 字 로동신문에 發表된 前述의 論說 「우리 黨의 위대함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不敗의 統一과 團結」은 위와 같은 「알레르기症狀」的인 混亂・固執을 說得・制壓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 論說에서 「革命偉業繼承時期」라는 特別한 「時期」規定을 만들어 놓고 「金正日書記의 思想・理論」에 依한 指導를 강조한 것도 원래가 金正日支持派중의 많은 「革命이데올로기 強硬分子」들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金日成, 金正日の 「敎示」, 「指導」는 「絶代無誤謬性」의 立場에서 永遠不滅의 「至上命題」로서 살아가면서 「過剩忠誠競争」의 對象이 되는 것이 北韓의 實體이다.

1970年代以來의 「革命이데올로기」最優先과 「全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화한다」는 活動도, 1984年以來의 「轉換」路線도 모두가 「至上命題」라는 커다란 矛盾과 撞着속에서 「試行錯誤」를 反復하고 있는 것이 現在의 北韓의 實態이며, 日本에 대한 態도의 動搖도 이 試行錯誤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3. 「金正日後繼體制」의 問題點

金正일에 관해서는 公式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주 적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現在 北韓이 「革命偉業繼承時期」의 中心期에 있으며, 그 「指導的 指針」이 「金正日書記의 思想・理論」이라면 避할 수 없는 길이라 하겠다.

우선 먼저 問題가 되는 것인 네포티즘(nepotism : 族閥主義), 卽 父子에 依한 「權力世襲」일 것이다.

還甲을 넘긴 남자가 自己가 벌여 놓은 事業들을 子息에게 넘겨주고 싶어하는 所望은 특히 儒教的 思考에서는 一般通常的인 衝動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北韓에는 이러한 「傳統的 支配」나 「카리스마的 支配」가 아직 有效하게 機能하는 與件과 狀況들이 남아 있다.

또 社會主義의 理念과 네포티즘과의 關係의 問題도 이미 스탈린, 브레즈네프등이 그 前例를 만들어 주었다는 理由로 金日成은 後日 이 選擇이 가져올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그다지 重視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특히 金日成의 경우는 네포티즘 一般의 問題가 아니라 하나의 「執念」을 父・子 2代에 걸쳐 나라와 人民에게 強要한다는 點에서 罪가 한층 더 많아지게 되었다. 1950年代 6・25動亂에서 韓國을 삼키지 못한 金日成에게는 痛恨・屈辱의 記憶이 되어 있는 것을 나라와 人民에게 移植시켜 自己를 代身하여 자식 金正日을 내세워 「南朝鮮解放革命」을 實現하여 「全朝鮮革命」을 完結시키겠다는 것이다.

北韓內에서도 이와 같은 「權力世襲」에 처음부터 批判의 意見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金日成의 「代를 이어 革命을 領導할 後繼首領은 『主體思想』을 가장 잘 體現하고 『革命의 血統』을 올바르게 이어받는 者가 아니면 안된다. 父子관계와는 상관없이 이 條件에 적합한 人物이 金正日 뿐」이라는 억지辨明・說得을 늘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時期의 批判意見은 社會主義의 理念과 「父・子權力世襲」과의 矛盾을 두려워했던 것이나 1982年 4月에는 다른 面, 卽 金正日의 「首領」으로서의 資質을 疑問視하는 立場에서의 世襲批判이 널리 擡頭할 조짐이 보였었다. 1981~82年間의 經濟의 「誤導」가 問題가 되었던 것이다.

이 때의 批判動向은 곧 當局의 措置로 鎮壓되었지만 不平・不滿은 陰性化하

여 人民들 속에 흘러 들어간 것 같다. 다음 해인 83年 11月 日本으로 脫出한 人民軍下士 閔洪九도 「世襲」反對를 脫出 理由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이 問題에 대한 蘇聯과 中國의 反應은 兩國이 모두 公式으로 言及하는 것을 回避하면서 金正日이 「主席後繼者」로 選定된 것으로 限定하고는 「지금 北韓에서 進行되고 있는 事態로서의 認識」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87年 5月 25日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를 公式訪問한 고르바초프는 友好集會에서의 演說에서 「과모프스투오(네포티즘)」를 호되게 批判하였고, 同年 6月初旬 東京에서 열린 第3次國際學術심포지움에 參席했던 駐日蘇聯大使館의 고위 외교관도 非公式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金正日後繼問題에서 承認을 해준 적은 絶對로 없다」로 言明한 事實이 있다.

또 上記 심포지움에 參席했던 中國代表의 한사람은 會議發言에서 「北韓에서는 金正日을 主席後繼者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다만 權力世襲이라는 것은 中國에서는 絶對로 承認될 수 없는 原則問題」라고 말하였다.

北韓은 이 問題에서는 自國人民과 蘇聯 및 中國과의 사이에 각 한개씩의 爆彈을 안아들인 꼴이 되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다른 2個도 연쇄적으로 폭발할 可能性이 있는데 그것이 不發彈으로 끝날 것인지의 與否는 앞으로 남겨진 問題이다.

둘째로는 金正日을 떠받고 있는 「새 實權派」로서 登場하고 있는 幹部들의 資質과 力量의 問題가 있다. 金日成이 1973년에 「後繼者問題」에 本格的으로 손대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過去에 生死가 걸렸던 여러차례의 權力鬭爭과 肅清鬭爭들, 그리고 滿洲빨치산 以來의 同志들의 協力으로 끝까지 싸워서 成功했던 記憶들이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經驗들을 되

살려 자식인 金正日의 주변에도 金正日과 같은 世代의 特別히 信賴할 수 있는 同志들에 依한 두꺼운 防護의 「壁」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3大革命(思想革命・技術革命・文化革命)小組」였던 것이다.

이 3大革命小組는 1974年 2月 黨中央委 第5期8次會議後 金正日을 最高責任者로 하여 全國의 主要工場・事業所, 協同農場등에서 既成 「實權」幹部들에 대한 「奪權鬭爭」을 果敢하게 推進하였다. 그리고 金正日이 金日成에 다음 가는 「넘버 2」, 「主席後繼者」로서 公式적으로 登場한 1980年 10月の 第6次黨大會를 前後하여 各各中央・地方의 黨・行政機關, 社會・經濟・貿易등 各團體의 中樞的 地位에 進出함으로써 「金正日後繼體制」를 떠받치는 「새 實權派」로서의 配置에 成功하였다. 여기까지는 金日成의 시나리오가 有效하게 作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이들 「새 實權派」幹部들은 몸에 젖은 편파적인 思考와 行動으로 오히려 「金正日後繼體制」를 出口가 보이지 않는 「迷路」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知識이나 教養, 機能같은 것은 問題外로 하고 「革命이데올로기」萬能의 1970年代初의 「主體思想」과 「金日成主義」에 대한 忠誠度만을 基準으로 하여 選拔된 젊은이들 뿐이었다. 거기에다 또 「다른 모든 思考・行動을 一切 認定하지 않는」 排他的인 「全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한다」는 鬭爭의 前面에 내세워진 骨髓分子들이기 때문에 幅넓게 「經國濟世」할줄 아는 智慧를 닦을 機會를 갖지 못했다.

또 派遣된 職場・地域에서는 그날 그날의 「奪權鬭爭」과 「生産鬭爭」, 「3大革命붉은旗獲得運動」같은 투쟁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金日成・金正日의 이름을 내세워 「鬭爭」形式과 「政治캠페인」方式으로 處理하는 것 만을 배웠던 것이다.

1981年初 金正日과 그의 「새 實權派」幹部들은 다음해인 82年 金日성의 「古

稀」(70歲)를 祝賀한다는 名目으로 「大紀念碑的 建造物建設」方針을 내세웠다. 그 첫 시작은 「凱旋門」과 「主體思想塔」그리고 「한쌍의 大噴水」등으로서, 「革命의 首都」를 장식하는 「平壤樂園化」事業이었고, 이어 同年 10월에 發進시킨 「4大自然改造課業」事業(干拓, 開墾, 南浦閘門, 泰川댐・發電所)이라는 大土木事業인데 여기서 黨・政府・人民의 總力を 投入하는 일대 政治캠페인을 展開하였다.

이를 위하여 戰爭時에 對備하여 地方據點으로 分散配置되어 있던 各基幹事業과 그밖의 工業部門으로 부터는 原資材들이, 그리고 熟練工場勞動者의 大多數가 平壤 및 그밖의 土木工事등에 供出됨으로써 機械・施設의 交換・補修部品の 補強등이 中斷되는 등 各種 生産活動에 莫大한 被害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中央에서는 때마침 推進中에 있던 第2次經濟7個年計劃(1978~84年)이 위의 事業優先의 影響을 直擊으로 받아 中途에서 四分五裂로 分斷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前述한 1982年 4月頃의 金正日의 「資質」을 둘러싼 世襲批判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狀況을 反映한 것이었다. 事實 이 時期의 各 生産系列의 荒廢와 「經濟計劃」의 蹉跌 및 兩事業에의 尙大한 投資의 「不實化」가 꼬리를 달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北韓의 經濟不振을 빚어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事態들은 「새 實權派」幹部들의 思考와 行動의 패턴을 典型的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우리 式」이라 稱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1970年代의 「革命이데올로기」, 「金日成主義」教養의 「象徴的 限界」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들로부터는 1980年代에 들어 크게 變해가고 있는 「現實의 世界・世界의 現實」에 대한 知的欲求도 理解努力도 아주 抑制된 形態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集團的인 重患인 「狀況適應不能症」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式」에 매달리는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해서 逸失되어 버리는 많은 機會들이 累積되어 經濟的 後進성과 國際的 孤立感を 深化시키고, 또 다시 「우리 式」으로 되돌아 가는 循環이 거듭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問題는 如前히 溫存되고 있는 對南特殊工作機關등의 最近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特殊工作擔當인 黨連絡部和 黨調查部, 特殊部隊, 第8軍團등의 主된 工作對象이 韓國이라는 것은 지금도 變함이 없지만 最近 그들의 行動의 「動機」중에 自國을 언제까지나 「革命이데올로기」最優先의 狀態였던 1970年代의 北韓으로 回歸시키려는 衝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點이다.

1980年代에 들어 北韓의 論理로 말한다면 「國內問題」이어야 할 武力的인 「南朝鮮解放革命」이 國際的으로 否定・抑壓됨으로써 김일성生存中の 「南朝鮮 併合・統一」이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數次에 걸친 金日成의 訪中, 訪蘇를 통하여 이들 兩國과의 政策調整의 必要성과 兩國으로 부터의 要請・拘束도 增大되고 있다. 더구나 兩國이 모두 往年의 中國・蘇聯이 아니라 「改革」, 「페레스트로이카」의 흐름속에 있는 것이다.

北韓이 이와 같은 情況에 對應하여 조금이라도 柔然・開放的인 方向으로 政策修正을 試圖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마자 對南特殊工作部門에 서식하고 있는 「革命이데올로기 強硬分子」들이 上部에 그 政策修正의 撤回을 要求하며 이를 妨害하는 行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되었다.

1983年 10月の 「버마爆彈테러事件」은 人民軍特殊工作部隊 將校 3名을 實行犯人으로 한 事件이었다. 同事件은 金日成이 中國의 說得에 따라 南北韓・美國의 「3者會談」開催에 同意하여 이 問題에 대한 「對美協議의 仲介」役을 10月

8日 中國에 依賴한 다음 날인 9日에 발생하였다.

또 1987年 11月の 「KAL機爆破事件」은 黨調查部所屬 特殊工作員 金勝一・金賢姬 등 2名이 調查部長으로 부터 傳達된 「金正日書記의 指示」에 따라 實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月에는 1日에서 9日까지 朴成哲 國家副主席이 모스크바를, 그리고 9日에서 14日까지 李根模 總理가 北京을 各各 訪問하였다. 會談의 한쪽 當事者인 中國側은 「이번 訪蘇와 訪中을 통하여 北韓은 現代의 社會主義陣營에서의 改革에 대하여 배우려 하고 있으며 내년초에라도 內外路線을 再調整할 조짐이 보인다」고 中國이 귀띔하고 있었다.

그리고 「金賢姬진술」에 따르면 李根模總理가 아직 中國에 滯在하고 있던 11月 12日 黨調查部는 日本人父女 「蜂谷 眞一・眞由美(마유미)」로 假裝한 KAL機爆破 特殊工作組를 平壤에서 送出하고 있었던 것이다.

黨이데올로기部門의 強硬分子나 對北特殊工作部門의 尖銳한 活動家로서는 「革命이데올로기」의 優先성과 「南朝鮮解放革命」路線의 階級的인 確立이야 말로 그 存在理由의 「證明」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存在를 威脅하는 것은 敵 「南朝鮮」이 아니라 自國路線의 開明的, 良識的인 變化라는 事態가 深化되어 가고 있다. 「內部的 敵」과의 鬭爭이라는 觀點이 그들 속에 高潮되어 가리라는 것은 當然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前述한 1984年 3月 7日字 평양방송 解說이 「우리內部的 敵對階級的 殘黨分子」問題를 「內部矛盾」으로서 把握하지 않고 「破壞・謀略策動을 하고 있다」는 「階級的 敵」으로서 明確하게 斷罪하고 있었던 것도 그 一例라 하겠다.

이러한 內部的으로 초조하게 하는 要素들이 增大하면서 그들의 「테러」行爲가 從來와는 그 모습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兇惡化 傾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看過해서는 안된다.

첫째, 이때까지의 일정한 制約을 隨伴한 「革命을 위한 테러」에서 直接 「革命」과 結付되지 않은 多數의 사람들을 끌어 들인 「宣傳과 衝擊을 노린 大量殺人行爲」를 採擇하게 되었다.

둘째, 테러行爲의 場所가 韓半島의 범위를 넘어서 地球的인 범위로 擴大되어 大規模의 計劃과 工作網으로 實行되게 되었다.

셋째, 그들에게는 第3者임이 분명한 國家와 國民의 生命, 名譽, 財産, 利益 등을 예사로 짓밟고 테러의 犠牲으로 만드는 獨善的인 過激性, 殘虐性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넷째, 實行計劃은 면밀하나 「北韓의 犯行」으로 탄로난 뒤에 當然히 自國政府當局이 받게되는 國際的 指彈이나 損失같은 것은 犯行의 事前・事後에 전혀 介意치 않는 「무죄함」이 指摘된다.

위에 列舉한 네가지의 特徵的 動向이 어떤 意味를 가지는지 慎重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4. 中國・蘇聯에 대한 對應과 「우리 式」

北韓이 中國과의 사이에 「1980年代」를 내다본 實質的인 對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983年 6月の 金正日 中國秘密訪問(6月1~12日)이 그 시작이었다. 中國側은 金正日이 「主席後繼者」로 되어 있으므로 「元首級」의 歡待를 베풀고 中國의 「4大現代化」등에 대하여 詳細히 說明하고 理解와 協力을 얻기 위해 힘썼다. 中國의 鄧・胡指導部로서는 國政面에서 「保守派」와 緊張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背面에 해당되는 北韓이 理解있는 「右軍」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期待가 있었다.

中國은 金正日이, 前述한 바와 같이, 歸國直後の 黨中央委員會 第5期7次會議에서 호된 中國批判을 敢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金日成을 불러 事態의 改善을 要求하게 되었다.

1983年 8月 19日 大連樺樺島賓館(호텔)에서 열린 鄧小平・金日成 兩首腦의 秘密會談이 그것이었다. (會談開催 事實은 同賓館의 滯在者로 부터 確認되었다)

이 會談에서 鄧小平은 金正日の 中國批判言動을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라는 強한 意向을 보인 다음 中國의 現狀과 「4大現代化」路線에 協力하는 뜻에서 韓半島의 長期的 安定化의 措置와 北韓이 中國과 손잡고 經濟의 向上・活性化에 힘써줄 것을 要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全面的인 協力을 約束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사실 金日成은 1982年 4月の 金正日派에 依한 反對派彈壓以來 活動의 場을 잃고 있었다. 金日成은 李鍾玉總理, 孔鎭泰副總理, 金永南外交部長등 「새 實權派」登場以前에 金日成政權을 받들어 온 國際經驗이 豊富한 高참 테크노크라트幹部들을 召集하여 1983年 8月初부터 金일성 스스로 「親政復活」의 形態로 內外政策의 再評價와 再編에 손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짜낸 것이 1984年 1月に 提唱된 前述한 「轉換」路線이다.

이 사이에 10月 9日 「버마爆彈테러事件」이 일어났다. 中國側은 金日成이 中國에 대하여 「南北韓・美 3者會談」에 관한 「美・北韓協議의 仲介役」을 依賴한 다음 날 발생한 「테러事件」이었기 때문에 美國에 대한 中國의 體面을 잃게 되었다는 點과 韓半島의 安全문제에 대한 不安感에서 北韓에 대한 態度를 硬

化시키고 内外政策의 轉換壓力을 더 한층 強化하였다. 結局 이 「테러事件」은 1984年 1月の 北韓의 「轉換」路線에 中國의 입김을 더 한층 強化시키는 要因이 되기도 했다.

北韓과 蘇聯과의 「1980年代」의 만남은 中國의 그것보다 1年쯤 늦게 「체르넨코의 蘇聯」의 招請에 依한 1984年 5月부터 金日成의 蘇聯・東歐諸國巡訪(5月16~7月1日)에서 시작되었다. 金日成의 蘇聯公式訪問은 23年만이였다.

金日成의 蘇聯訪問은 처음부터 蘇聯側의 北韓에 대한 軍事的 接見意圖가 얽혀 있었던 것 같다. 蘇聯은 前年인 1983年 9月 1日 蘇聯軍에 依한 사할린上空에서의 「KAL機擊墜事件」으로 極東軍管區의 對美方面의 戰略쉬프트와 緊急應戰시스템・能力이 美軍과 日本自衛隊에 그대로 露出되었다는 判斷을 내리게 됨으로써 그 再編準備를 最緊要課題로 삼고 있었다.

東京에 있는 東歐某國大使館의 情報通(84年 9月)에 따르면 蘇聯은 84年봄 北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고 있었다.

- (1) 北韓軍幹部의 蘇聯內에서 「現代戰教育」
- (2) 蘇聯軍事顧問團의 迎入
- (3) 蘇・北韓의 「戰略」과 「兵器」의 統一
- (4) 元山港에 蘇聯軍基地 建設
- (5) 上記 要請이 充足되는 경우 蘇聯은 미그 23型機의 제공및 北韓에 대한 無條件의 2億弗(美貨)의 經濟援助를 한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上記(1)은 承認, (2)는 拒否, (3)은 「今後의 事態進展에 따라 考慮」, (4)는 拒否하고 代案으로서 羅津港의 「使用權擴大」를 提示하였다. 그 뒤 체르넨코書記長과 金日成의 會談(5月24~25日)에서도 이 問題가 나왔으나 上記 北韓의 回答의 線에서 留保되고 蘇聯側은 미그23型機의 제공

에 同意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었다.

「체르넨코의 蘇聯」에 依한 北韓에의 「軍事援助」라는 것은 實際로는 極東軍管區의 再編의 一環으로서 北韓의 軍事力을 그속에 編入시킬 것을 노린 「軍事介入」性格의 것이었다. 말하자면 「아세아에서의 바르샤바條約機構(WTO)」의 구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다음해인 85年 3月 10日 체르넨코가 死亡하고 「고르바초프의 蘇聯」으로 移行했는데, 同年 4月 24日 字 「평양방송」이 傳한 金永南副總理겸 外交部長의 訪蘇(4月16~23日)에 관한 「共同커뮤니케」에서 고르바초프書記長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NATO型的 軍事同盟化가 進行되고 있다」는 指摘을 吐露하였다. 이 指摘은 蘇聯이 歐羅巴에서의 「NATO 對 WTO」라는 防衛戰略의 構圖를 아시아, 北韓에도 그대로 적용 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고르바초프書記長은 「체르넨코의 蘇聯」時代의 對北安全援助=介入方針(實은 極東軍管區가 체르넨코에 強要한), 極東에서의 對美戰略 再構築方針을 한동안 踏襲하였다. 1985년에는 北韓에 대하여 미그23型機와 新型 地對地미사일, T72型戰車, 戰鬥헬리콥터등의 제공, 航空隊의 相互訪問, 海軍의 合同訓練·寄港, 蘇聯基地에서의 「現代戰」教育등이 實施되었다.

北韓은 蘇聯의 軍事援助를 받아들임으로써 軍事力의 增強을 얻었지만 그 反面에서는 人民軍의 「아시아에서의 WTO」化됨에 따라 이를테면 「統一問題」등에서 軍事力에 呼訴하는 그러한 제멋대로의 判斷으로 行動하는 「自由」를 束縛 받은 結果가 되었다. 가령 「統一問題」에 다시 軍事力을 行使할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손발이 묶이는」 事態는 北韓의 「革命이데올로기 強硬分子」들로서는 불편한 事態였을 것이다.

바야흐로 「페레스트로이카」路線에 拍車를 가한 고르바초프書記長은 1986年

7月 28日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 시베리아·極東地域의 經濟開發과 아시아·太平洋地域에의 進出政策을 내놓았다. 그리고 同年 10月の 金日成의 모스크바公式訪問(10月22~27日)의 歡迎宴에서 同書記長은 「統一로 나아가는 길은 다만 韓半島의 情勢만 關聯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이 地域의 全般的인 情勢의 改善, 善隣關係의 發展과 不可分하게 結附되어 있다」고 말하고 「東의 NATO」에의 「共同對處」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全般的 情勢의 改善」에의 協調를 強力히 要求하였다.

「統一問題」에 있어서의 情勢判斷마저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아시아·太平洋地域에의 蘇聯의 어프로우치, 이를테면 蘇聯의 對韓國接近에도 充分한 考慮가 있어야 한다」는 主張일 것이다. 이것은 다음 段階에서 고르바초프書記長의 1988年 9月16日 「크라스노얄스크演說」에서의 蘇聯과 韓國과의 接近에 관한 發言으로 이어져 갔다. 北韓은 1960年代, 70年代의 中·蘇對立의 時代에 對中國·對蘇聯關係를 저울질함으로써 自國이 살아남을 空間을 교묘하게 만들어 내고 그 틈에서 이른바 「主體思想」이니 「金日成主義」니 하는 것을 마음대로 휘둘러 왔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 「中·蘇和解」가 段階적으로 進展되고 特히 中·蘇 雙方이 같이 서서 北韓에 대한 要求를 공통적으로 「韓半島의 長期安定化」로 壓縮시켜온 것은 北韓에 대하여 傳統的인 對中·蘇對應(兩國를 저울질하는 方式)을 許容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時期에, 卽 1980年代에, 中·蘇가 다같이 無條件 承認을 받아 들이지 않는 「父·子權力世襲」에 依한 「金正日後繼體制」問題가 새段階로 접어들게 되었으니 北韓으로서는 昏迷를 倍加하게 된 것이다.

獨特한 「首領論」이니 「血統論」이니 하는 것 까지 동원한 「主體思想」과 1950年代의 6·25動亂의 怨恨에 뿌리를 둔 「金日成主義」를 原形 그대로 固執해 나

간다면 「地域的」, 「古典的」, 「異教的」인 存在로 格下될 狀況이 深化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一色化」를 強制하고 있는 代償으로서 「變化」에 對應하는 「權限」과 「能力」은 자신에게만 歸屬되어 있는 꼴이 되어 金日成은 孤獨한 鬪爭을 통하여 그 自身の 哲學・行動樣式은 바꿀 수 없다는 奇理라도 唯我獨尊的으로 君臨할 수 있었던 1970年代~1983年 까지의 「낡은 金日成主義」와 「金正日後繼體制」의 순탄한 未來를 바라는 配慮를 包畵한 「새 金日成主義」와 의 自家撞着을 혼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父母마음 子息은 모른다고,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유별나게 「北韓的」인 情景이라 할 수 있겠다.

1987年 7月15日 字 「평양방송」과 「로동신문」은 步調를 맞추어 金正日의 「主體思想教育에서 提起되는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86年 7月 15, 未發表論文)를 들고 나왔다. 특히 「평양방송」의 解說에서는 「金正日書記」의 말씀이라고 前提하고는, 「우리는 民族第一主義를 主張한다」, 「큰 나라나 發展된 나라들에 대해서 幻想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큰 나라들의 役割을 正當하게 평가하고 그들 나라와 善隣關係를 發展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主體性을 내던지고 큰 나라가 하는 일에 盲目的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세계의 進步的人民들이 ……우리나라를 『主體思想의 祖國』으로 높이 評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에 걸맞는 民族的自負心을 가져야 하며, 金日成同志를 높이 받들고 黨의 指導에 따라 革命과 建設을 우리人民의 要求와 現實에 맞도록 우리 式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確固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 式」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맺 음 말

以上 살펴보았지만, 이제 「그렇다면 北韓에 대하여 어떻게 處身해야 할 것인가」라는 問題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항간에는 흔히들 「相當한 규모의 經濟的 지원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든가, 「北韓이 바라는 것은 경제지원이며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北韓은 經濟적으로 막다른 길에 와있으니 조만간 日本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나오지 않겠는가」는 등의 意見들이 보인다. 이는 당치도 않는 見解라 할 수 밖에 없다. 韓民族은 古來로 名譽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民族이요, 「事理」를 내세울 수 있는 相對나 경우에는 끝까지 「事理」를 主張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國際的發想으로 「適當主義」나 「妥協主義」또는 金權萬能的 思考로 接近했다가는 「資本主義的 害毒을 뿌리는 모욕적 行爲」라 하여 相對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또 經濟的 破局要所도 그것은 변두리나 下層人民정도의 相對이지 平壤의 中級幹部以上은 「人民生活의 充足」이 保障되어 있으며 金日成·金正日의 世上에서는 「地上樂園」다운 데이터 以外는 들어갈 수도 없는 構造로 되어있기 때문에 經濟困難을 理由로 態度를 바꾸는 따위의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 문제는 역시 마음속으로 부터의 「誠意」를 가지고 南北韓全體와 日本과의 過去·現在·未來를 잘 보는 「明確한 認識」을 가지고 臨해야 할 것이다. 알뜰한 그때 그때 狀況에의 對應이나 무턱댄 情緒的인 입에 발린 修辭는 여기서는 取할 態度가 못된다. 日本이 北韓·日本關係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바로 韓日關係를 再考한다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 點에 대하여 韓國은 從來로 北韓에 대하여 「對決」政策을 펴 왔고 日本에 대해서도 對北接近과 비슷한 움직임만

있어도 嚴格하게 反撥・牽制하는 態度를 지녀 왔다. 그러나 그러한 韓國도 昨年인 1988年 7月7日 盧泰愚大統領의 「特別宣言」으로 北韓에 대한 政策을 「對決」의 關係에서 「兄弟」의 關係로 轉換하고 人的交流促進과 交易의 門戶開放등으로 나아갈 것을 明確히 밝혔다.

이럴때 日本이 考慮해야 할 것은 韓國도 諒解할 수 있고 北韓도 納得할 수 있는 「全韓民族」의 未來를 支援하는 새 「韓半島政策」을 빨리 찾아내어 이것을 兩國에 說得하는 일이라 하겠다. 새 「政策」의 策定은 빠를수록 좋으나 說得段階는 아직 南北韓問題가 安定的方向으로 나아가 있지 않으므로 慎重히 끈질기게 時間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北韓의 「納得」은 어디에 있을까. 1972年 7月15日 金日成은 訪北한 渡邊 니이가타市長(當時)에 대한 發言에서 日本政府가 南北韓에 대하여 「均衡政策」을 써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하였다. 또 同年 9月7日 朴成哲 第2副總理(當時)는 「均衡政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日本이 南朝鮮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同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南에 援助한다면 우리나라에도 援助해주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南에도 주어서는 안된다」(9月8日, 毎日新聞記者와의 會見). 當時와 情勢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이 「原則」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1984年 9月10日 北韓外交部 代辯人聲明은 韓國의 全斗煥大統領의 訪日에 反撥을 보이면서 「植民地統治期間에 대한 賠償請求權의 保有를 明白히 宣言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日本으로서의 이와 같은 일을 分明히 가리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Ⅱ. 北韓：'80年代 情勢回顧와 '90年代 展望

— 南北韓 統一政策을 中心으로 —

朴 一 聖

(內外通信 論說委員)

1. 問 題 意 識

우리 7천만 겨레의 至上念願은 祖國統一이다.

그러나 우리 祖國 韓半島의 統一問題에는 기본적으로 美蘇日中等 주변 4強 間의 利害關係와 南北韓間의 對立關係 및 남북한 각자의 對內的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

경험은 이 같은 條件下에서는 남북한 당국이 武力統一은 삼가하고 오직 平和統一만을 위해 주변열강간의 協力, 남북한간의 和解 및 남북한 각자의 民主化等を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80年代 남북한이 각기 제창한 統一政策과 關聯情勢를 회고해 본다.

2. '80年代 北韓의 統一政策과 關聯情勢 回顧

1980年 10月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金日成은 종전의 「高麗聯邦共和國」 창설방안을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방안으로 變更 제창하였다.

북한은 이를 위해 「自主·平和·民族大團結」原則下에 한국의 「國家保安法 廢止, 共產黨活動 合法化, 駐韓美軍 撤收」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諸政黨, 社會團體代表 및 개별적 인사(海外同胞代表包含)로 구성되는 連席會議(參加者는 형식상 동등한 자격을 갖지만 사실에 있어서 北韓代表는 勞動黨黨員만으로 구성된 代表)를 통해 聯邦制 실현방법(최근에는 상계 전제조건 실현방안까지) 협의(多數決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統一國家機構로서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회의」를 구성하며 통

일후 「10大 施政方針」으로서 「自主的政策實施,民族經濟 發展保障,民族文化·教育의 統一的 發展,民族聯合軍組織,平和愛護的 對外政策等」 형식적으로는 보편성을 위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聯邦制」는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체제」나 「과도기구」 및 「통일국가의 未來像」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缺陷」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本質的이며 근원적인 것은 북한의 최고지침인 「朝鮮勞動黨」規約에 자기들의 「最高綱領」(最終目的으로 표현됨)은 전한반도의 「공산화」와 「主體사상一色化」이며 最低綱領(當面目的)은 「북반부에서의 社會主義 完成」과 「전반적 범위에서 社會主義革命 수행」(남조선혁명을 통한 「高麗民主聯邦制 실시」)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즉, 북한은 형식상 「一聯邦·二地方政權」(西歐式聯邦)의 통일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南韓革命을 통해 「一黨支配下·一聯邦 二(또는 數個)地方政權」(소련式 共產主義聯邦制)으로 통일하자는 의도이다.

〈韓國 및 周邊國家의 態度〉

그렇지만 북한의 이와 같은 「聯邦制」 統一方案을 한국은 물론 周邊4強中 美國과 日本도 이해할 리 없다.

최근에는 蘇聯도 북한의 남북연방제 統一方案을 非現實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89. 9. 5 모스크바 放送)

〈國際的 環境〉

(1) 美國：駐韓美軍撤收를 계획하던 民主黨의 카터政權이 물러나고 保守反

共的인 共和黨 政權이 들어서면서 美國은 힘의 優位政策으로 소련과 북한을 제압하였다.

(2) 日本：親韓派 中曾根內閣이 들어서면서 防衛費가 GNP 1% 벽을 넘는 등 軍事力強化로 韓美日 유대를 강화하였다.

(3) 蘇聯：1974년이후 減少一路에 있던 對北軍援은 1979년(안드로포프時代)에 完全停止되었다. 그러나 蘇聯은 保守派인 체르넨코등장, 소련의 KAL機 격추사건에 대한 北韓의 지원성명(1983. 9), 金日成의 모스크바방문(1984), 소련極東軍管區 對美日戰略再編, 蘇·北韓海軍合同訓練, 소련機 北韓上空飛行權 획득등으로 1985년부터 미그 23기, 25기, 29기 및 SCUD-B, SA-3, SA-5 미사일등을 제공 하는 등 對北韓軍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등장(1985)과 페레스트로이카(改革), 글라스노스트(開放) 政策, 블라디보스톡 演說과 그라스노야르스크 演說, 서울올림픽參加, 韓蘇貿易 代表部 交換 설치, 韓蘇領事關係 설정, 韓國의 UN加入不反對등 '80年代 후반 기 이후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종전의 親北韓一邊倒政策에서 「두개의 韓國」 政策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 中國：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改革·開放政策과 胡耀邦, 趙紫陽 등 改革派에 의한 對韓交易 증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참가등으로 中國의 對韓政策은 「政經分離原則」에 따라 「實務關係」로 발전되었다.

'89년 6·4天安門事件으로 改革派 趙紫陽이 실각하고 老·軍等 保守勢力이 부활함으로써 改革속도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實用主義路線과 改革·開放政策, 특히 對韓實務關係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6·4이후 對韓交易量 계속 증진, 對北韓 油類共給 대폭 감량).

'89. 11초 金日成은 北京을 극비리에 방문, 中國指導層에 韓國의 UN가입저

지포함의 對韓接近政策 중단등을 요청했으나 中國側은 남북한 等距離政策(韓國만의 UN加入反對) 의사만 표명했을 뿐 對韓實務關係 중단 불가태도를 밝히는 한편 오히려 북한의 改革·開放政策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東歐諸國：東歐國家들의 改革·開放 물결은 教條的, 閉鎖的인 金日成, 金正日 一家의 族閥世襲王朝에 매우 불리하다.

북한의 적극적인 妨害策動에도 불구하고 東歐諸國중 알바니아만 제외하고 모두 88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貿易·文化·體育交流 등으로 對韓接近에 적극적이다. 東歐 7개국중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유고等 5개국이 서울에 貿易事務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헝가리와 폴란드 및 유고는 한국과 公式修交關係를 맺고 있다.

이상 概觀한 것처럼 '80년대 國際的 環境은 북한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80년대 國際情勢는 기본적으로 北韓의 「연방제」 統一方案 추진에 불리하였다.

〈北韓의 內部情勢〉

'80년대 북한의 內部情勢에서 괄목할 것은 勞動黨 제6차대회를 계기로 하여 ①金正日の 登場과 後繼體制 구축, ②'80년대 10大 展望目標 추진사업으로서의 第2次 7個年計劃(1978~1984)과 第3次 7個年計劃(1987~1993)을 비롯하여 ③軍事力 증진, ④'89년의 「平壤祝典」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核心的인 분석대상은 ①의 金正日の 後繼體制 構築動向이다.

'80. 10 勞動黨 第6次大會를 계기로 絶對獨裁者 金日成에 이어 第2人者로 등장한 金正日の 中心課業은 자신의 「權力承繼基盤構築」이었다.

金正日是 권부의 핵심인 黨秘書局을 장악했지만 그당시 그것만으로는 黨內, 軍部內, 政府內 舊體制를 타파하고 新體制를 구축하는데 불편하였다.

金正日是 黨規와 憲法을 초월한 北韓版「紅衛兵」이라고 할 수 있는 金日成·金正日직속의「3大革命小組」를 앞세워 主體思想 一色化운동, 80년대 速度創造運動 및 무자비한 肅清 등 이른바「우리식」으로 자신의 후계 新指導體制를 구축하려 함과 동시에 자신의 領導像을 부각 시키는데 최우선을 두었다.

즉, 그는 主體思想一色化運動에 의한 金日成의 絶對化, 金氏家系の 偶像化, 自己血統의「神聖化」등으로 族閥世襲體制를 합리화하려 했다.

한편 金正日是 대항세력을 없애기 위해 政務院에서 人民武力부와 社會安全部를 분리하여 자기「王室」직속화함으로써 總理 산하 政務院을 實務執行機構로 약화시켰고 黨秘書局內 軍事部長을 겸임함으로써 軍事委員會를 有名無實화하였다.

그와 함께 金正日是 철없는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三大革命小組에 督察權, 人事權, 指導教養權 등 막강한 특권을 부여하여 黨·軍·政 기관은 물론, 工場 企業所, 協同團體 등을 査察, 監督, 肅清, 運營하게 함으로써 북한사회를「無法天地」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金正日是 김일성이 제시했던「10大展望目標」사업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治績으로 삼기 위해 이른바 平壤의 樂園化, 紀念碑的 大建造物 建設事業, 대규모 設備投資, 4大自然改造運動 및 世界青年學生 平壤祝典開催 등에 북한의 勞動力과 財政 및 原資材를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84년에 끝나기로했던 第2次7個年計劃도 2年間연장됐고「80年代 10大 展望目標」는 1993年(第3次 7個年計劃 目標年度)으로 연기되었으며 87년에 출발한 第3次 7個年計劃은 그동안 年間實績조차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오늘날 북한주민의 衣·食·住生活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던 戰後 日本國民의 그것보다도 형편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것이 88年度 GNP 約2百億弗(韓國의 8.2分の 1), 같은해 1人當 GNP 980弗(韓國의 4.1分の 1) 밖에 안되는 수준에서 平壤祝典 및 그와 관련된「紀念碑的 大建造物」등 비생산적 분야에 (勞賃除外 約250億弗 투입說) 무모한 힘을 소모하였다.

金日成은 80年代 중반이후 姜成山總理와 吳克烈總參謀長 등 50代 中堅指導層을 제거하고 빨치산출신 崔光, 全文燮을 재등용함과 함께 經濟專門家 李根模에 이어 延亨默을 總理로 기용함으로써 親政體制로 복귀함과 아울러「科學技術 3個年計劃」, 「소비재 增產計劃」 등으로「주먹구구」式 金正日의 무모성을 억제하고, 經濟再建, 人民生活向上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軍事力은 해마다 증강되었으며 특히 韓國의 政權交替期인 88~89년 사이에 20萬을 증강, 總兵力이 100萬名 가까이 늘어났다. 軍事費는 每年 GNP의 20%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80年代의 북한은 金日成의 教條主義的 武力增強과「통이 크다」는 金正日의 주먹구구式 後繼體制構築事業으로 財政을 탕진하였다. 그 결과는 이미 지적된대로 南北韓間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80年代 北韓의 對南戰略 戰術〉

북한의 對南戰略은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發想에 의해서 수립 추진된다.

스탈린에 의하면 戰略이란「당강령이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타격대

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에서 自己最終目的(最高綱領)으로 韓半島의 共產化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當面目的(最低綱領)으로 남한에서의 革命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金日成은 혁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革命家들은 主客觀的 情勢와 敵我間의 力學關係 및 相對方 住民의 心理狀態를 科學(辨證法)的으로 분석 평가하고 敵陣內部的 모순 약점 및 가능성을 능숙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분석 평가된 대로 80년대 對內外情勢와 남북한 力學關係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불리하고 남한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金日成은 辨證法的 樂觀主義로 精神武裝하면 「不利를 有利化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金日成의 辨證法的(스탈린的) 情勢觀에 의하면 南韓의 強點속에는 弱點, 즉 남한에는 美軍이 주둔하고 있기때문에 「民族的 모순」이 있고, 남한은 資本主義社會이기 때문에 「階級的 모순」이 있으며 남한은 多黨制民主政治를 하기 때문에 「與野間 모순」 등 3大基本矛盾이 있는 바 現情勢와 力學關係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이 모순을 革命的으로 잘 이용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南韓情勢觀에 기초한 北韓측의 對南戰略體系를 보면 「南朝鮮革命의 任務는 駐韓美軍撤收, 南韓政府打倒, 人民政權수립」이다.

그리고 南朝鮮革命의 성격은 「反美, 反韓 人民民主主義革命」이기 때문에 革命의 대상은 駐韓美軍과 韓國內 地主, 資本家 및 反動官僚層이고 革命의 動力은 남한내 勞動者 農民을 主力으로 하는 모든 反美, 反政府 세력이며 지원역

량은 北의 革命力量과 國際革命力量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들의 革命力量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表現되고 있다.

$$\text{國力(革命力量)} = \text{軍事戰力} \times \text{政治戰力}$$

즉, 國力(革命力量)은 軍事戰력과 政治戰력을 배합한 것이며 둘 가운데서 하나라도 「零」으로 되면 國力(革命力量)도 「零」으로 되는데 그중 「政治戰力」은 戰爭(軍事戰)前, 中, 後에 걸쳐 실시되며 政治戰을 잘 하면 軍事戰력을 덜 들이거나 또는 軍事戰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勝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軍事戰力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을 포함」한 主體戰法에 따라 먼저 非正規戰(政治戰)으로 상대방을 교란, 피곤하게 한 다음 決定的 시기에 正規戰으로 일격에 적을 격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에 기초하여 北韓은 '80년대에 一邊 軍事力強化, 一邊 對南 政治戰(思想戰, 謀略戰, 組織戰, 情報戰, 心理戰, 群衆戰, 協商戰, 테러=暴力戰 등 多様な 政治戰法)으로 한국의 國力を 와해·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즉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 金日成主體思想주입, 5共和國지도부에 대한 謀略宣傳 및 流言蜚語流布, 學園·勞動界 침투, 學生데모 및 勞使紛糾煽動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對南政治戰을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강력한 對應措置로 그와 같은 소극적 政治戰으로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中心고리戰法」(統治權者에 대한 謀略과 테러등)으로 政權交替를 유발하려 하였다.

越南의 경우, 막강한 同盟國인 美國과 韓國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1963년 「고 딘 디엠」大統領 暗殺이후 1975년 敗亡될 때까지 12年間 6번의 쿠데타와

두번의 쿠데타미수로 指導層과 국민들이 4分5裂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敗北하였다.

북한의 경우 故朴正熙大統領에 대한 테러(文世光事件)와 국제적 음모, 全斗煥大統領에 대한 량군테러사건과 모략, 그리고 現大統領에 대한 모략선전과 퇴진요구등 일련의 「中心고리戰」으로 우리의 政治體系의 혼란과 非正常的 政權交替등을 획책해 왔다.

10.26事態後 경제의 마이너스成長과 최근의 社會混亂 및 경제침체를 北韓은 자기들이 意識化, 組織化한 勞使紛糾와 反政府學生 투쟁 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南北對話(協商戰)에 있어서도 북한은 第5共和國 시절에는 팀스피리트韓美聯合軍 年例合同訓練 을 「北侵訓練」이라고 매도하면서 南北對話를 중단 또는 거부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韓, 美國 三者會談을 제의, 일찌기 中國에서의 國, 共, 美 三者會談 또는 越南에서의 4者會談(南北越, 베트남, 美國) 같은 것으로 對美接近, 韓美離間을 꾀하려 하였다.

그리고 第6共和國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多邊的 南北會談이라는 명분하에 南北赤十字會談,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南北體育會談, 南北韓高位當局者(政治軍事)會談 豫備會談 등 當局者會談에는 形式的으로만 응해 왔을 뿐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韓 政黨, 團體 및 個別的 지도자 連席會議」를 제의하면서 그裏面에서는 남한의 在野 個別人士들과의 非當局者會談을 통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실현을 위한 反韓統一戰線形成을 획책하였다.

이렇게 80年代의 북한은 內外 여망과는 달리 南北韓當局對話를 통한 平和統一與件造成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北韓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大會에 불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KAL機를 空中爆破한 對韓테러事件과 金正日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平壤祝典에 주력했다는 사실은 저들이 人類와 民族和合의 祭典보다는 金正日의 承繼體制구축을 우선했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民主化過程에 편승하여 聯邦制戰略을 위해 對南 混亂, 破壞戰術에 주력하는 것도 저들의 「聯邦制」 統一方案은 非平和的이며 反民主的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南戰略, 戰術이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로 부터도 비판을 받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3. '90年代 基本情勢 展望과 問題点

첫째, 國際情勢가 東西冷戰體制에서 東西和解體制로 이행됨에 따라 國家間 平和, 共存, 共榮과 地域間 協力體制(블럭化)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특히 中蘇兩國의 改革, 開放의 加速화와 美日等 先進富強한 나라들의 對外 協力支援事業의 확대로 新興工業國家이며 世界10大貿易國家로 된 한국의 地位向上과 役割增大가 可視化될 것이다.

둘째, 國內情勢는 領導者의 확고한 民主化意志, 地自制 실시, 地域開發 및 國際化時代를 맞이함에 따라 국민들의 民族的 自尊心과 民主的 意識은 날로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轉換期的 갈등은 점차 해소될 것이며 統一에 대한 國民的 合意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북한의 경우 美蘇間, 東西間의 화해, 소련의 東進 및 韓國의 近代化, 民主化, 國際的 地位向上은 저들의 國際的 孤立을 深化, 教條主義的 中央集權

制와 閉鎖政策에 기초한 金日成·金正日 一家의 族閥世襲體制維持에 매우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외로부터 改革과 開放의 압력도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神」인 金日成이 생존하는 한 東歐諸國과 같은 改革, 開放體制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90年代 북한의 對內情勢는 金日成, 金正日 사이의 政權交替期로 될 것이다.

90年代初에는 金正日 後繼體制構築을 위한 第7次 黨大會가 열릴 것이며 그것을 전후하여 族閥內部的 權力鬭爭과 人事改編과 세력간의 계층간, 세대간, 思想的, 政策的 대립 및 經濟不振에 따른 住民不滿 高潮등으로 對內的 혼란과 위기를 면하기 힘들 것이며 軍部の 動態가 주목된다.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이상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90년대 對內外情勢와 남북간 力學關係는 韓國에 유리하고 北韓에 불리하다.

그러나 金日成이 생존하고 있는 한 金正日이 등극한다 해도 저들의 教條主義的 世界觀과 발상에서 나온 「高麗民主聯邦共和國」統一方案과 이를 위한 對南態度는 쉽사리 변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韓半島統一情勢에서의 最大變數 즉 최대의 걸림돌은 金日成으로 될 것이며 南北韓間에는 한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과의 對立關係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런데 북한의 「聯邦制」는 非現實的이라는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는 北韓이 '90年代에 처하게 될 內外情勢 및 南北韓間 力學關係가 北韓의 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들 특유의 教條主義的 發想

과 工作으로 「不利의 有利化」戰法을 구사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은 金日成, 金正日 一家 族閥世襲王朝의 政治的·經濟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저들 특유의 政治戰法으로 情勢의 有利化를 도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테면 北韓은 지금과 같이 '90年代에도 對內的인 위기를 對南工作으로 해결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北韓은 宣傳的이며 探索的인 남북대화를 多角的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그와 함께 다른면에서는 한국내의 過渡期的 갈등(勞使紛糾, 學生運動, 階層間 地域間 갈등, 韓美間 貿易마찰 등)을 이용하여 「主體思想」意識화와 함께 국제 각층에 침투, 「主體思想」, 「聯邦制」, 「南北連席會議」 「反政府, 反美」意識화 등으로 「階級的 모순」과 「民族的 모순」을 확대함으로써 反政府, 反美鬭爭을 격화하고 한국의 政治的, 社會的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심화하려 할 것이다. 北韓은 '90年代 초부터 시동될 政界改編과 次期政權交替(1993년)를 결정적 시기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

특히 北韓은 이같은 事態를 추진시키기 위해 이른바 「中心고리戰法」(指導層 테러)와 같은 폭행을 감행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한편 북한은 時代的潮流에 편승하여 平和와 和解 및 協調를 위장, 對美日接近으로 聯邦制 및 美軍撤收 실현을 위한 反韓工作을 강화할 것이다.

4. 韓國의 對應策

여기에서 韓國의 대응이라 하면 韓半島와 관련된 情勢의 흐름과 內外的 여망에 부응함은 물론 이와 같은 북한의 對南戰略, 戰術에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集中的으로 표현한 것이 韓國에서는 '82年 1月 22日 全斗煥大統領이 新年國政演說에서 발표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89年 9月 11日 盧泰愚大統領이 國회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될 것이다.

第6共和國은 祖國의 統一與件을 조성하기 위해 建國以來 처음으로 「北方政策」을 추진하여 對共產圈關係改善을 시도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先「民族和合」後「民主統一」方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統一 政策을 종합, 체계화한 것으로서 「民族和合」을 위한 중간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랭군테러사건, 86아세안게임 거부, KAL機 공중폭파사건, 서울올림픽 不參, 對韓挑發的 「平祝」 강행 및 反政府人士의 平壤招致등으로 '80年代는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民族和合」보다는 「民族的 不和」를 증대시킨 時期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對內與件造成에 있어서도 「民主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國內 民主化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때문에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도 非現實的인 것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결함을 보완함은 물론 歷史의 흐름과 內外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나온 것이 盧泰愚大統領이 제시한 「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다.

그 基盤造成으로 盧大統領은 '88年 6.29宣言을 계기로 國內 民主化作業에 착수하여 그해 民選大統領으로 당선되자마자 남북관계를 「對決關係에서 同伴者關係」로 개선할 것을 호소했고 同年 10月 18日 「유엔總會 演說」에서는 「美, 蘇, 中, 日, 南北韓」 「6者會談」으로 平和的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개선할

것을 제의함과 아울러 第1次的 事業으로 「北方政策」을 적극 추진, 對中蘇 및 東歐 關係 改善에 많은 진전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아직 미흡하나마 歷史의 흐름과 여망에 기본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에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補完만이 아니라 북의 「高麗聯邦制統一方案」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구상한 盧泰愚大統領은 지난 8月 15日 第44回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자신의 構想을 밝히고 내외의 반응을 얻어 이것을 다시 補完, 지난 9月 11日 國會에서 그 전모를 公式發表했던 것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몇가지 基本特徵으로는 ①統一의 中間段階로 南北韓間에 「國家聯合」형성을 제의했다는 것, ②남북한간 政治, 軍事的 對決問題 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 ③「南北評議會」를 남북한 「同數」로 구성하려 한다는 것, ④기존 統一方案(北의 聯邦制까지 포함)을 대폭 受容했다는 것 ⑤統一推進原則과 未來像에 「民主」를 못박아 놓았다는 것 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여기 대한 반응은 첫째, 國內(특히 各政黨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고, 둘째로 北韓이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셋째로, 國際的 반응(특히 소련의 반응)은 비교적 肯定的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國民的 합의와 北의 호응 및 國際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내적으로는 民主化로 轉換期的 갈등을 해소시켜야하고 對北的으로는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民族的 同質化 및 信賴回復을 증진시켜야 하며 對外的으로는 北方外交를 포함한 全方位外交로 國際的 地位와 협조폭을 보다 확대, 發展시킬 것이 요청된다.

'90年代에도 韓半島에 작용될 主客觀的 情勢와 南北韓力學關係등 대세는 한

국에 유리하게 展開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金正日 權力承繼問題와 經濟的 不振, 改革·開放을 위한 內外壓力 등으로 위기에 直面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情勢의 불리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過渡期的 모순, 약점 및 가능성(특히 靑年學生層과 民衆의 統一與望)을 最大限으로 이용하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우리의 對內的 近代化, 民主化, ②北方政策을 포함한 全方位外交의 강화, ③說得을 통한 南北關係改善 등임은 再言을 필요치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현재 韓半島의 統一을 위한 「統一史觀」을 확립하여 우리겨레의 思行指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같은 統一史觀을 구현하기 위한 接近方法으로는 70年代末에 시도한 바 있는 「民族史의 正統性」理論을 現實狀況에 적응할 수 있도록 研究, 발전시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實踐的 手段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Ⅲ. 北 韓 의 人 民 軍

塚 本 勝 一

(日本平和安全保障研究所)

1. 머릿말

北韓人民軍의 실패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自由諸國에서는 北韓人民軍 兵士들의 생활을 兵營을 직접 들러 본다거나 體驗하거나 함으로써 접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韓國戰爭 開戰 직후 占領당한 서울에 모습을 드러낸 人民軍 兵士들의 모습은 젊고 規律바른 集團으로 보였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어두운 인상을 남기고 있는 잔학한 행위는 人民軍에 뒤따라 侵入해 온 共產黨員들이 저지른 것들이었다. 그 人民軍도 맥아더元帥의 仁川上陸反擊作戰으로 궤멸되었다. 韓國戰爭은 그 뒤로는 대부분이 中國의 人民解放義勇軍에 의하여 수행되고 北韓의 人民軍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人民軍은 전쟁의 와중에도 再建에 착수하여 戰後에는 急速한 성장을 보이게 되었지만 두번다시 自由諸國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없이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으며, 망명, 귀순한 兵士의 증언이나 板門店의 JSA(共同警備區域)에서 散見되는 將兵들의 인상에서 人民軍判斷의 재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였다. (大韓民國은 DMZ를 사이에 두고 人民軍과 對峙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는 情報들이 있다. 또 美軍은 偵察衛星과 偵察機에 의해 情報를 입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西方側에서는 人民軍이 共產圈에서 蘇聯·中國에 다음가는 강대한 군사조직으로 보고 있다. 「Military Balance」 1989~1990年版은 人民軍의 總兵力이 100萬名을 돌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일관하여 人民軍이 韓國軍에 비하여 약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抑止力을 軍의 가장 優先

任務로 삼는 현대사회에서는 軍事力을 실제보다 강대하게, 그리고 장비도 最新의 것이라는 점을 전시함으로써 그 威力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北韓의 태도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자신의 軍事力을 실정보다도 훨씬 약체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北韓의 平和이미지를 假飾·強調하려는 것일까, 혹은 커질대로 커진 軍備·兵力이 더 이상의 軍備競爭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명하다.

그러나 北韓이 아무리 否定해 본들 현실적으로는 北韓의 國力보다는 훨씬 強大한 人民軍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人民軍은 共產圈에서는 蘇·中에 버금가는 強大한 軍隊인 것이다.

2. 北韓人民軍의 現狀

北韓人民軍은 때로는 量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質의 향상에 注力하는 식으로 시종 增強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韓國戰爭期間과 그 뒤 수년동안 (中共軍의 예상밖의 조기철수로 말미암아) 人民軍은 오로지 量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방침은 1957년부터 시작된 「人民經濟發展5個年計劃」에서 전환되었다. 당시 人民軍의 兵力은 일단 기본적인 틀(地上軍 34萬名, 海軍 함정 110隻, 空軍機 500台)을 갖추고 있었으며 勞動力確保라는 經濟的인 이유로 그 이상의 兵力 增強은 어려웠다.

1960年代에 들어 人民軍의 전략에 큰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非正規戰의 重視이다. 원래 人民軍은 非正規戰에 익숙해 있었는데 越南戰爭의 교훈은 美軍과 같이 현대화된 군대와와의 싸움에는 北韓과 같은 약소국은 非正規戰이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北韓은 1964년경부터 非正規戰部

隊의 육성에 착수하여 1966년경부터 實戰配置를 하고 있다.

1970년의 第5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을 중시하는 새로운 軍事戰略을 채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金日成戰略의 특색은 강대한 非正規戰部隊와 함께 軍의 機械化에 주력한 점이다. 즉 非正規戰部隊가 적국을 교란하고 그 혼란을 틈타 正規戰을 발동하여 機械化部隊로써 일거에 적의 섬멸을 기도하려는 것이다. 이 무렵부터 軍의 機械化가 진전되어 戰車師團이 2배로 증가하는데, 軍의 現代化는 얼마 못가서 정체되어 버린다.

그 첫째 理由는 經濟의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軍事費의 增額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무렵부터 시작된 金正日에의 權力世襲을 위한 공작이었다. 1970년부터 약10年間 北韓은 그 대부분의 힘을 世襲工作에 소비하고 있어 人民軍의 增強이 정체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人民軍의 現代化는 진전되지 못했으며 더구나 1974년이후부터 감소되고 있던 蘇聯으로 부터의 軍事援助가 1979년에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려 北韓은 부득이 1970年代 후반에 들어 質의 향상을 체념하고 재차 量의 정비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1984年 金日成의 蘇聯訪問을 계기로 하여 1985년부터 蘇聯의 원조가 재개되고, 또 兵力의 증대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人民軍은 또다시 軍裝備의 現代化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策을 修正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단계에 와 있는 北韓經濟로 말미암아 國防費의 增額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이 軍의 現代化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5年 이래 北韓人民軍이 받은 中·蘇로 부터의 원조는 다음과 같다.

〈蘇 聯〉

MIG戰鬪機 1985~86年の 2年間 約50機

Scud-B 미사일. 거의 위와 同時期

SA-3 미사일. 上同

SA-5 미사일. 上同(最小 3個 據點이 있음)

SU-25 戰鬪機(對地攻擊機) 1988年初에 判明. 最終的으로는 約24~25機

MIG-29 戰鬪機. 上同. 最終的으로는 約20機.

〈中 國〉

1982~83년에 MIG-21戰鬪機(中國型) 約40機.

그 以後는 中斷狀態.

(1) 過重負擔

「Military Balance 1989~90」에 따르면 北韓人民軍의 總兵力이 104萬名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國防白書 최신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北韓의 주장 대로라면 1987년에는 일방적으로 10萬名을 삭감하여 42萬名정도로 되어 있어야 할(同年 9月 10日 人民武力部 대변인 談話) 人民軍이 어느새 배이상으로 늘어났으니 北韓의 발표도, 또 「Military Balance」의 수치도 그 정확도가 분명치 못하다. 그러나 北韓의 감축선전에도 불구하고 1985年 이래 유지하고 있는 80萬名 이상의 兵力이 감소되었다는 情報가 없는 것으로 보아 北韓이 인구에 비하여 과중한 兵力負擔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北韓의 人口 1,000名당 兵力比率이 40名을 초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33名을 크게 앞지르고, 經濟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않는 限界數值인 10名線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人民軍이 北韓의 人的 資源에 과중부담이 되고있고, 그만큼 經濟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狀態가 여러해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니 그 영향은 실로 심각한 것이다.

다음에 北韓의 國防費를 보면, 上記 「Military Balance」(註)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에 GNP對比 9.3%(1986年 8.8%)로 되어 있다. 이 수치로 따지면 兵力 1人當 國防費가 約 5,035.8弗이 되며, 日本의 自衛官 1人當49,850弗에 比하면 約10分の 1에 지나지 않는다. 軍人の 給料가 싼 北韓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는 軍의 現代화는 바랄 수도 없다. 그러므로 北韓의 실제 軍事費는 公表된 수치보다는 더 많으며, 적어도 그 2배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는 推計가 생겼다. 이 推計値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註)

年度	GNP	國防費	比率
1986	440.9億弗	38.7億弗	8.8%
1987	455.4億弗	42.2億弗	9.3%

그렇다 하더라도 GNP對比 10%(실제는 더 많다)에 가까운 國防費를 지출한다는 것은 평시로서는 과중한 부담이다.

日本에서도 露日戰爭(1904~1905年) 및 中國戰爭을 일으킨 1937年 이래 10% 넘게 國防費를 지출한 적이 있지만, 그 이외 평시에는 GNP 對比 6%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장기간에 걸친 평화시인데도 GNP對比 10%정도(실질적으로는 20% 가깝게)를 國防費로서 지출하고 있으니 그 부담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國防費 支出규모가 상시 戰時狀態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래서야 經濟가 外國상태에 빠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상 자료는 Military Balance, 日本의 防衛핸드·북 참조)

(註) 北韓人民軍의 兵力

(單位: 萬名)

年	陸軍	海軍	空軍	計
1985	75	3.5	5.3	83.8
1986	75	3.5	5.5	84.0
1987	75	3.5	5.3	83.8
1988	75	3.9	5.3	84.2
1989	93	4.0	7.0	104.0

上記 表에 의하면 1989년에 北韓地上軍이 일거에 20萬名 가까이 增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增加된 것이 아니라 2~3年前부터 漸增되었던 것이 89년에 와서야 정확하게 判명된 것으로 說明되고 있다.

이 地上軍에는 特殊軍團이 포함되어 있다. 特殊軍團의 수는 情報에 따라 8萬名~12萬名으로 구구하다. 部隊數는 25개 部隊로 알려져 있으며, 偵察部隊 4, 渡河部隊 1, 上陸作戰部隊 1, 空挺部隊 2, 特殊部隊 1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中 DMZ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것은 4개 旅團(特殊旅團)이고, 旅團은 本部, 管理隊, 通信中隊 및 10개의 偵察部隊로 되어 있으며, 總兵力은 4,200名이다. 偵察部隊는 2~6名이 팀을 짜서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特殊部隊(9개 部隊) 中 일부는 美軍의 核, 化學兵器의 탈취와 要人의 암살, 유괴 및 美軍基地의 폭파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2) 金正日과 人民軍

北韓은 人民軍이 中核이 되어 건설된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人民軍이 차

지하는 政治的 地位는 높다. 1964年の 黨中央委員會 第4期8次總會에서 「3大革命力量強化」論이 채택되었을 무렵부터 人民軍의 힘을 전면에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政策에서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널리 外交·經濟 등의 종합적인 힘의 結集에 의한 정치로 방향을 바꾸고, 이어 1960年代 末의 對南계렬러 強硬作戰의 실패와 軍의 肅清에 따라 人民軍의 탁월한 힘은 후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전히 組織的인 힘을 가진 人民軍이 政治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權力을 世襲시킴에 있어서 처음부터 人民軍을 장악토록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金正日에게는 人民軍에 관한 실질적인 經驗이 거의 없으므로 대규모의 사람집단인 人民軍의 통솔은 어렵다.

그러나 金日成의 빈틈없는 배려에서 나온 정책에 따른 金正日의 人民軍에 대한 統率, 指導는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金日成은 우선 1972년에 黨員證을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軍內的 保守的인 世襲批判幹部들을 숙청하고, 이어 總參謀長에 萬景臺革命學院時節부터의 金正日의 학우인 吳克烈을 앉혔다. 軍의 人事와 思想宣傳을 장악하는 政治系統의 간부에는 金正日 信奉派인 3大革命小組系의 젊은 將校들을 발탁·配置시켜 軍內的 思想動向을 감시시켰다. 혁명초기부터 金日成을 따라다니며 행동을 같이 한 吳振宇次帥를 金正日의 補佐役으로서, 人民軍의 最高位職인 人民武力部長이라는 자리를 활용하여, 人民軍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金正日의 그림자 처럼 수행시킨 것도 효과가 있었다.

組織의 개편도 단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黨總書記局안에 軍事部를 신설하고 金正日이 그 部長職을 겸임하여 人民軍의 統率을 실질적으로 黨書記局에서

실시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黨書記局을 장악하고 있는 金正日의 人民軍에 대한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되었다.

1980年の 第6次黨大會에서 金正日이 金日成의 다음가는 지위를 확보하고 1984년에 金一副主席이 死去하자 政治局에서도 第2人者로 승격되었으며, 이 시점쯤 되어 金正日에의 人民軍지휘권의 이양은 굳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1988年 2月 갑자기 吳克烈이 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되고, 1969年 軍의 숙청과정에서 쫓겨났던 고참幹部인 崔光大將이 취임하였다. 또 이미 은퇴하였던 全文燮上將이 大將으로 승진되면서 人民武力部の 副部長이 되었다. 말하자면 人民軍의 主要幹部를 金日成의 빨치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吳振宇, 崔光, 全文燮등 고참幹部들로 채운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人事의 年少化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갑작스런 人事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金正日의 指示說이 있는 「버마事件」과 「KAL機爆破事件」 등과 근년에 연발하고 있는 人民軍의 불상사 등에 대한 책임을 吳克烈에게 지웠다는 견해도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고참幹部들의 복권의 뜻이 해명되지 않는다. 아마도 人民軍內의 개혁 움직임에 대한 싹을 고참幹部의 「體驗的인 主體思想」으로써 꺾어 냄으로써 人民軍은 양날칼로서 가장 강력한 金日成王朝의 支持基盤인 동시에 反革命에의 원동력으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한 金日成一團의 용의주도한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 人事는 金正日의 人民軍에 대한 統率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金正日이 권력을 이어 받았을 경우 人民軍의 지휘와 指導가 원활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 고참幹部의 힘이나 金正日 個人의 역량에 시련이 닥쳐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正日에게는 金日成과 같은 軍에서의 실적이 없고 또 카리스마도 없다. 고참幹部의 統率에 대한 젊은 將校들의 반발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軍事的 側面으로 보더라도 金正日の 權力世襲은 그다지 단순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北韓人民軍의 戰略

金日成이 革命活動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부터 軍事戰略이라 할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抗日遊擊隊」를 조직했다는 1930年代부터 1945年경까지의 활동을 굳이 체계화한다면 이른바 毛澤東의 遊擊戰鬪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이 시기에 실제로 어떤 戰鬪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明確한 資料가 거의 없다). 이 당시 金日成은 中國共產黨戰士의 영향하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毛澤東戰略을 터득했을 수도 있다. 金日成은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遊擊戰鬪戰略을 중용하고 있는데 그 기반은 이 무렵에 배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戰爭에서는 당초 기습을 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으나 이 성공은 金日成의 전략이 뛰어났었기 때문이 아니라 作戰 그 자체를 이미 반년전부터 蘇聯 軍事顧問團이 협력하여 작성했으며, 또 北韓에는 蘇聯과 中國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南日, 武亭, 金策 등의 武將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中國義勇軍이 개입한 뒤의 韓國戰은 주로 中國의 彭德懷에 의하여 지도되었었다. 彭은 이 戰爭에서 現代戰爭에 있어서의 技術, 裝備의 중요성을 認識했고, 특히 地上戰에 있어서의 戰車, 미사일 등의 이용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바가 있었다.

그 뒤 이 物資重視의 사상때문에 精神을 강조하는 毛澤東과 대립하여 실각하게 되었지만, 金日成은 이 彭德懷의 전략에 어느 정도의 감화를 받은 것 같다. 金日成은 機甲部隊에 의한 突破作戰의 중요성을 그 뒤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要素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 1960年代의 中期(1966年 10月の 黨代表者會議)에 발표한 金日成의 戰略이다.

이에 따르면 「그때의 主觀的, 客觀的인 정세에 맞추어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등 여러가지 鬭爭形式과 方法을 잘 엮어서 革命運動을 展開시켜 나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大部隊에 의한 正規戰의 決戰戰略이 전쟁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非正規戰, 즉 遊擊戰과 謀略을 重視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970年 11月の 第5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이러한 軍事戰略을 集大成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써 金日成戰略은 일단 체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戰略을 요약하면, 현대화된 軍隊(美軍中心의 部隊)와의 싸움은 韓半島의 地形·氣象등의 특성을 잘 살린 遊擊戰과 謀略등을 활용하여 적을 약화시킨 다음 기회를 보아 機械화된 正規軍을 동원한 本格的인 作戰을 결행하여 일거에 적을 擊滅하자는 것이다. 이 軍事戰略은 금일에도 北韓의 중심적인 전략으로 되어 있다.

金正日에게는 軍事戰略이라 할 著作이나 發言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金日成의 테두리를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1982年 3月 31日에는 金日成 生日70周年記念 全國主體思想討論會에 寄稿하여,

「帝國主義者の 侵略戰爭에는 解放戰爭으로 對抗하고, 反動派의 反革命暴力에는 革命的暴力으로 對抗하며, 帝國主義者の 侵略과 戰鬭策動에는 항상 萬全의 對備로써 對處한다」,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 決定的要因은 兵器나 技術

에 있는것이 아니라 自己의 偉業의 올바름을 自覺한 軍隊와 人民大衆의 高度의 政治的熱意와 革命的獻身性에 있다」는 등 4大軍事路線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發表論文에서 살펴보면 金正日의 軍事戰略은 金日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正日論文의 特色은 「自衛的武力은 勤勞人民의 子弟들로 組織되어야 한다」, 「革命的人民武力의 政治的·思想的優位性으로써 帝國主義侵略軍을 격파하도록 해야 한다」 등을 서술하고 있는 點이다. 이로써 金正日의 思想重視와 身分制度에 대한 思考方式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4年 9월에 日本의 신문은 北韓이 3개의 機甲軍團을 새로 編成했다고 報道하였다(9月 23日字 産經濟聞). 한국의 國防通에서는 이 報道가 거의 틀림없다고 말하고, 새로 編成된 機甲軍團은 4개이며, 그 中 2개는 DMZ의 바로 後方에, 다른 2개는 各各 平壤과 元山에 1개씩 配置되어 있을 可能性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 報道는 그뒤의 1985年 3月 5日 美國防次官補인 J·켈리의 美下院 아시아 小委員會의 證言에서 더욱 具體化되었다. 켈리次官補는 「北韓은 1984年末부터 前方配置를 完了하고, 새로 100以上の 陳地를 구축하여 위장을 完全하고 巧妙하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北韓이 攻勢的인 配置로 移行하고 있다는 것을 證言하였다.

이어 同年 3月 21日에는 同委員會에서 윌피츠美國務次官補가 北韓이 DMZ 부근에 地下要塞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金日成의 訪蘇에 따라 蘇聯으로부터의 軍事援助가 再開되어 人民軍은 우수한 蘇聯兵器를 入手함과 동시에 1985년부터는 蘇聯海軍과의 合同訓練이

始作되었다. 이와 같은 情勢에 힘을 얻은 北韓은 機甲部隊를 戰車軍團 1, 機甲軍團 3으로 集約하고 戰車 3,500台, 裝甲車 1,700台등을 綜合運用하는 組織을 確立하였다.

部隊의 前方配置와 機甲部隊의 再編은 北韓人民軍이 攻勢的인 戰略을 樹立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開催되었는데 北韓은 아마도 이에 照準을 맞추어 한국을 威脅하면서 KAL機爆破事件등의 謀略을 併用하여 한국에 대하여 攪亂作戰의 敢行을 企圖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企圖는 成功하지 못했으며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런데 北韓人民軍은 前方配置의 態勢를 바꾸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다음 機會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 北韓人民軍과 核

金日成은 核戰略에 관하여 지금으로서는 明確한 方針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核兵器를 保有하거나 導入할 意圖가 당장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1972年 6月 1日에는 日本公明黨의 北韓訪問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核兵器의 生産은 할 수 없으며 生産할 생각도 없다. 核兵器는 北韓에게 必要한 兵器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非核3原則과 北韓의 立場은 같다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北韓이 非核3原則의 政策을 펴고 있다고 言明한 바는 없다.

그러나 北韓은 表面的으로는 非核政策에는 熱心인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은 「朝鮮半島의 非核·平和地帶構想」(1988年 第6次黨大會)을 發表했고, 또 1981年 3月에는 北韓을 訪問한 日本社會黨의 飛島田委員長과 共同宣言을 採擇하

기도 했다.

이 宣傳色이 짙은 北韓의 非核政策은 蘇聯의 고르바초프書記長에 의하여 評價되어, 1986年 7月 28日 고르바초프書記長이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 여기에 대하여 言及하게 됨으로써 北韓의 非核政策은 蘇聯에 의하여 拘束되게 되었으며, 어느정도 金日成의 政策을 牽制하게 되었다.

그런데 最近에는 北韓이 公言하여 왔던 非核政策과 모순되는 情報가 報道되기 시작하였다. 1989年 1月 26日字 Far Eastern Economic Review紙는 北韓이 平壤 北方의 寧邊부근에 核燃料再處理工場을 비밀리에 建設하고 있어 核兵器 製造를 企圖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이 있다고 報道하였다.

寧邊은 以前부터 北韓이 蘇聯으로 부터 試驗用的 原子爐(3万KW?) 2基?를 제공받아 運用하고 있는 곳이다. 1985年 12월에 姜成山總理(當時)가 訪蘇했을 때 蘇聯은 總出力 100万KW以上(44万KW×4?)인 實用原子爐를 供與하고 技術指導할 것을 約束하였다. 그리고 그 實用原子爐도 이미 寧邊부근에 建設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情報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 또 다른 建造物이 建築中에 있으며 그 모양이 核燃料 再處理工場과 아주 닮았다고 報道하였다. 美當局도 이 情報를 是認하면서 1989年 4月 美日原子力協議를 하는 자리에서 美側은 「北韓이 核開發을 하고 있을」可能性을 指摘한 바 있다고 밝혔다. 同年 8月에는 솔라즈 美下院議員이 「北韓이 今世紀中에 核開發을 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核擴散防止條約을 遵守하도록 作用할」必要性을 강조하였다.

北韓은 蘇聯으로 부터의 實用原子爐를 導入하는 代價로서 1985年 12월에 核擴散防止條約에 調印했으나 1年半 以內에 締結해야 할 關聯施設의 查察協定은 아직도 締結하지 않고 있다. 1989年 10月에는 美베이커國務長官도 「北韓

의 原子力 프로그램은 危險하다」면서 그에 대한 우려를 表明하고 있다. 한국 當局은 北韓이 이미 적어도 廣島型原爆 10개 以上の 核物資를 保有하고 있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들 여러 情報은 北韓이 核兵器의 保有를 위하여 은밀히 計劃을 進行시키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北韓이 平素에 말하고 있는 非核政策과는 相反되는 行動이라 하겠다.

지금 現在로서는 아직 推定の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點이 많은 情報이긴 하지만 北韓이 核을 保有하면 이를 除去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周邊諸國에 주는 心理的인 威脅이 增大되고 또 核擴散의 危險性이 생긴다. 그 結果로서 東北아시아 地域의 不安定性을 增大시키게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北韓이 核을 保有함으로써 그들이 받을 不利益은 크다. 첫째는 金日成의 言行不一致에 따른 國際的인 信用의 失墜이다. 이것은 아주 큰 것이다. 다음은 中蘇와의 關係이다. 中蘇가 다같이 北韓의 核保有에 대해서 好意的일 까닭이 없으며, 中蘇와의 關係惡化를 招來하여 北韓의 孤立化가 深化될 것이다.

經濟的인 問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核兵器 開發에는 어느정도의 投資가 必要하여 北韓의 經濟가 이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더 더욱 民生의 壓迫을 強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不利도 돌보지 않고 北韓이 核兵器를 開發하고 있다면 그 目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北韓의 技術로 核兵器의 開發이 充分하다는 情報이 있다. 蘇聯은 試驗用 原子爐를 供與하기에 앞서 어느程度의 教育을 北韓學者에게 시키고 있다. 또 北韓은 核兵器의 운반수단을 이미 保有하고 있다. 蘇聯이 供與한 SCUD地對地미사일등이 그것이다. 核兵器開發에 관한 北韓의 目標은 역시 이 地域에 있어서의 主導的(Domination)인 地位의 確保이며, 南北統一에 대한 有利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金日成政權의 執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만으로 核兵器開發을 시작한다고 보기에는 그 根據가 弱한것 같다. 北韓의 核兵器開發에 대해서는 좀더 今後의 動向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

5. 앞으로의 展望

世界情勢는 지금 큰 變革期에 와 있다. 蘇聯 고르바초프書記長이 提唱하는 페레스트로이카는 東歐諸國의 社會主義一黨獨裁의 政治를 무너뜨리고, 東西 對立에서 緊張緩和쪽으로 急速한 改革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越南戰爭이나 蘇聯의 아프가니스탄軍事介入은 軍事力を 앞세운 政治가 아무 것도 거의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과거의 軍事力優位の 힘에 의한 政治는 이제는 適用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軍事力에 대신하여 經濟가 外交의 주요 手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的인 趨勢속에서 北韓만이 圈外에서 버티나갈 수는 없는 일이며 조만간 開放·自由化의 물결이 北韓에도 밀려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 時期가 언제쯤이 될것인지는 豫測할 수 없으나 늦어질수록 그 물결이 더 커질것은 一般的인 法則이다. 金日成의 物理的인 統治能力(死亡·健康上의 理由등)의 지속 여부가 크게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은 充分히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開放으로 향한 움직임의 原動力이 되는 것은 北韓에서는 아마도 人民軍일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에서는 學生이 推進力이 되고, 東歐諸國에서는 一般市民들이 結集하여 牽引力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強力한 抑壓때문에 組織力을 갖지 못한 北韓의 學生과 知識人, 勞動者들은 改革政策의 先頭에 서지

못하며 無力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北韓人民軍은 金日成政權을 떠받치는 強力한 基盤이며 가장 믿음직스러운 支持者들의 集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은 또 양날칼로서 改革의 原動力으로도 될 수 있는 危險한 存在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金日成이 人民軍을 掌握하고 안전하게 金正日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고 있으며 끝내는 崔光등 自己의 빨치산當時부터의 心腹들을 要職에 앉혀 人民軍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限定된 사람들의 힘만으로 世界的인 큰 潮流를 막을 수는 없다. 強力한 閉鎖政策에도 限界가 있을 것이다. 高齡인 金日成의 物理的인 體力을 감안하면 1990年代는 北韓으로서 큰 시련의 時代가 될 것 같다.

한편 東北아시아諸國으로서는 北韓의 內政 方向의 變化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이 數年間은 韓半島에 새로운 紛爭 可能性이 거의 없어 平穩한 情勢를 期待할 수 있겠다. 危險한 時期는 政權이 바뀐 뒤에 그것이 安定될 때까지의 期間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이에는 새로 權力의 자리에 오른 次期指導者(金正日일 가능성이 크다)가 內政의 어려움을 周邊과의 紛爭으로써 避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韓半島에 큰 波亂이 생길 可能性을 염두에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IV. 北韓經濟의 基本性格

玉 城 素
(北韓經濟專門家)

北韓經濟의 基本性格

우선 北韓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常識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範疇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北韓이 獨立된 사회주의 國家라고 認識하여 北韓의 경제가 破綻되었으므로 동구라파와 같이 改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北韓을 바로 認識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北韓을 한국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協商하려 한다면 이 역시 誤謬인 것이다.

그러면 北韓을 어떻게 認識해야 할 것인가. 北韓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1955年 4월에 發表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라는 題目的 테제가 判斷의 요체가 된다.

이 테제는 조선노동당의 기본 革命테제로 확립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다. 이 테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공화국」이 革命의 根據地라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全韓半島의 革命이 끝날때까지 北韓은 革命 根據地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테제가 지금도 一貫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89年 11月 道·市·郡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의 결과 보고에서 「인민정권은 혁명정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 「혁명정권」이라고 하는 用語는 特殊한 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다. 北韓이 國家 形態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革命의 道具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建設을 하더라도 다른 社會主義 국가가 건설하는 그런 건설이나 綜合的인 건설이 아니라 北韓이 추구하는 것은 革命 根據地 또는 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한 건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下에서 1960年代, 70年代의 經濟計劃이 失敗한 가장 큰 이유는 重化學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데에 치중하고 있었고 또한 軍需産業, 軍事力量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이 돌려졌기 때문인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아직 革命이 완성 되지 못하고 革命을 實現하는 過程이라는 思考方式 때문에 모든 경우에 政府보다는 黨이 優위를 차지하고 혁명에 관한 모든것, 모든 정책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 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데 있다. 黨이 計劃經濟에 개입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計劃經濟의 失敗가 빚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失敗의 첫번째 기록은 1961년부터 시작된 第1次 7個年 計劃의 2年째 되는 해에 4大軍事路線을 감행한 결과 이 7個年計劃이 3年연장 된 사례이다.

두번째 事例는 1973年 남북대화직후 金正日이 소위 3大革命小組를 이끌고 새로운 生産基地 建設을 시도 한 것이다. 이때문에 6個年計劃이 아주 암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세번째로는 1980年 6個年計劃에서 金正日이 黨權力을 확립한 후 80年代 10大展望目標를 발표하였다. 이 10大展望目標 발표후 4大 自然改造 事業이 진행되고 非鐵金屬 150萬톤 과제를 강요한다든지 化學纖維 15億미터 생산과제를 強要한다든지 하는 무리한 주문으로 말미암아 第2次 7個年計劃도 挫折되어 버렸다.

한편 金正日이 당내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싹도 나오게 되

었다. 즉 근거지내에서의 혁명과제 속에서 全 韓半島를 革命化한다는 문제와 3大革命을 수행함으로써 共產主義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北韓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첫째 이유는 그간 韓國의 經濟力과 政治力이 모두 강화됨으로써 韓半島 全體를 革命化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時間이 걸린다는 점이 北韓에는 상당한 重壓으로 작용하여 革命權力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北韓이 지금 共產主義로 나아가고 있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韓半島를 革命化한다 하는 그 과제 이외에 또하나 3大革命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3大革命課題에서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思想革命이란 人民들의 사상을 主體思想으로 一色化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철저한 速度戰을 내세운 철저한 大衆動員에 의해서 경제건설을 하게 되는 이러한 獨特한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이 思想革命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찰해 보면 10大展望 目標를 달성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金正日이 평양에 記念碑的 大建設物들을 건설해 나가고 이것이 平祝을 위한 평양의 樂園都市化로 연결됨으로써 이러한 非生産的인 建設에 힘을 돌린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經濟計劃에 黨이 간섭함으로써 計劃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형태였지만 이런 레벨을 초월해서 80년대는 經濟의 破壞가 진행되어 나갔다.

그런데 一般的인 常識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經濟의 失敗이지만 北韓經濟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當事者들 즉 金日成이라든지 金正日이라든지 하는 執權層은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平壤을 건설한다든지 혹은 自然改造에 의해서 30萬 헥타르의 간

척지를 개간함으로써 「쌀이 공산주의이다」, 혹은 비날론을 10億미터 생산함으로써 「옷이 공산주의이다」라는 형식으로 대규모 건설을 해나감으로써 共產主義를 향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이러한 不均衡的인 經濟發展은 北韓의 人民生活를 극도로 피폐로 몰아놓고 있지만 만약에 全韓半島의 규모에서 革命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만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예를들면 현재도 順川 비날론 공장을 건설해 나간다는지, 沙里院에 카리비료공장을 건설해 나간다는지, 茂山에 鑛山기지를 확장해 나간다는지 혹은 金策製鐵所 第2次 大擴張計劃을 추진해 나간다는 등 大建設事業이 꼬리를 물고 추진돼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大規模 施設들이 가령 완성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資金, 原料, 機械 등 가동하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들의 可用性을 감안하면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當事者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第3次 7個年計劃은 1992年 4月까지 앞당겨 완성될 계획으로 있지만 이 7個年 計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중심 슬로건은 7個年計劃이 완성되면 社會主義의 完全勝利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이와 並行하여 北韓은 1992年 4月까지 南北의 統一政策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제안된 平和 4大原則과 포괄적인 平和 提案을 살펴보면 이 원칙은 1991년까지의 美帝 勢力이 한반도에서 撤收하고 그 다음에 南北韓의 軍縮이 3段階에 걸쳐서 이룩된다고 하는 것이 세밀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統一의 條件을 1991년까지 규정하고 95년까지는 통일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 北韓의 目標이다. 이것은 平和提案의 형식을 띄지만 革命 根據地로서의 혁명을 달성하려는 目標이 여기에 設定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言動을 보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權力自體가 붕괴한다 하는 危機感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결국 金正日을 後繼者로 하는 문제는 이것이 실현되는가 하는 데에 하나의 도박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이 革命의 根據地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생각의 근저에 깔려 있어서 經濟發展이나 統一問題에 배합되어 있다고 여겨 지지만 중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즉 南朝鮮 革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조선 경제를 併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1992年 4월까지 經濟計劃이라든지 統一計劃이 북한이 의도하는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革命根據地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즉 革命 根據地라고 하는 것은 抗日武裝鬪爭式의 遊擊根據地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遊擊根據地를 기반으로 한 유격투쟁의 형태로 나올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 측에서 北韓을 정상적인 국가로 상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韓國의 統一政策을 살펴보면 成功的인 側面의 하나는 北方政策이라든지 交叉承認問題 같은데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즉 革命根據地를 추구하고 있는 상대인 北韓을 蘇聯·中國 또는 다른 國家의 힘을 빌리더라도 普通國家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努力이라는 면에서 成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北韓側으로 보면 前述한 1955年 4月 革命테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韓國의 北方政策이라든지 交叉承認問題 등이 2個朝鮮 造作策動이라고 강력한 반발을 하는 한편 革命根據地로

서의 國家를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革命根據地 路線, 또 혁명 근거지로서 유지해 나갈려고 하는 그 方向성과 革命路線에 부정적인 外部로 부터의 압력이 서로 相反되어 作用함으로써 현재 北韓에서는 動搖가 생기고 있고 權力層 內部에서도 동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90年代 특히 90年, 91年, 92年 무렵에 北韓에서는 모든 문제가 집약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의 危機的인 狀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해결 된다면 北韓에서는 1992年, 93年쯤 부터 새로운 政策 方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附 錄]

I. 北韓에 있어서의 經濟計劃과 實績(公式統計에 의함)

1. 總量 指標

區 分	工業總生產額	成長率	生産手段	消費財	備 考
1947年度 計劃					
1948年度 計劃	前年+50.6%				
2個年計劃(1949-50)	46年 337%	49.9	375%	288%	
戰後 3個年計劃(1954-56)	同上 615%	41.7	640%	598%	蘇聯, 中國 등
5個年計劃(1957-60)	同上 21倍	36.6	23倍	20倍	千里馬運動
第1次 7個年計劃(1961-67)	60年×3.3倍 46×69.3倍	12.8	3.7倍 85.1倍	2.8倍 56倍	3年延長
6個年計劃(1971-76)	70年×2.5倍 46×173.3倍	16.3	2.6倍 221.3	2.4倍 134.4	(1年調整)
第2次 7個年計劃(1978-84)	2.2倍 46×381.3倍	12.2	2.2倍 486.9	2.1倍 282.2	(2年調整)
第3次 7個年計劃(1987-93)	目標 1.9倍	10.0	1.9倍	1.8배	進行中

註1) 2個年計劃은 韓國戰爭으로 中斷되었음.

註2) 5個年計劃은 2年여 앞당겨 達成하고 緩衝期를 設定하여 60년에 終了하였음.

註3) 第1次 7個年計劃은 3年延長하고 1970년에 終了하였음.

註4) 6個年計劃은 1年 4個月 앞당겨 達成하였다고 發表되었지만 실제로는 1年延長하였음.

註5) 第2次 7個年計劃은 計劃대로 達成되었다고 發表하였지만 그후 2年間の 調整期間을 두었음.

주6) 第3次 7個年計劃은 1年 8個月 앞당겨 達成하는 目標를 設定하고 現在 進行中에 있음.

2. 部門別指標 ①(1960年代)

品目	7個年計劃目標	1962年 10大目標	1960年 實積	1963年 實積	1970年 實積
電力	330 - 350 萬 kwh	-	91.4	117.7	165
石炭	2,300 - 2,500 萬 t	1,500	1,062	1,404	2,750
銑鐵·粒鐵	220 - 250 萬 t		85.3	115.9	
鋼鐵	220 - 250 萬 t	120	64.1	102.2	220
壓延鋼材	160 - 180 萬 t	-	47.4	76.2	198
化學製品	5.5 倍	-	-	-	-
化學肥料		-	56.1	85.3	500
시멘트	400 - 450 萬 t	-	223.5	252.6	400
織物	4 - 5 億 m	2.5	1.9	2.27	4
食料加工品	3.2 倍	-			
日用品	4.2 倍	-			
穀物	660 萬 t	500			
水產物	120 萬 t	80	46.5	64	-

出處) 「社會主義朝鮮의 經濟」, 「統一朝鮮年鑑 1967-68」

3. 部門別指標 ②(1950—70年代)

主要工業製品 生産高 推移

品 目	單 位	1956	1960	1970	1976	1978	6個年計劃 實績
電 力	億kwh	51	91	165	280	350	75年 280
石 炭	萬 t	391	1,062	2,750	5,000	6,000	75年 5,000
鋼 鐵	萬 t	19	64	220	400	450	400 能力
化 學 肥 料	萬 t	19.5	56	150	300	400	75年 300
시멘트	萬 t	59.7	228	400	800	900	76年 800能力

註) 1956—78年은 『社會主義朝鮮의 經濟』, 6個年計劃實績은 77年 李鍾玉보고

參照

4. 部門別指標 ③(10大目標에 따름)

品 目	單 位	84年 目標	90年 目標	3次 7個年 目標	88年 實績
鐵 鋼	萬 t	1,200	1,500	1,000	690
非 鐵 金 屬	萬 t	100	150	170	—
石 炭	億 t	1	1.2	1.2	0.83
電 力	億kwh	500	1,000	1,000	540
시 멘 트	萬 t	2,000	2,000	2,200	1,300
機 械 加 工 品	萬 t	500	—	—	—
織 物	億 m	—	15	15	8.5
水 產 物	萬 t	500	500	1,100	370
化 學 肥 料	萬 t	500	700	720	—
干 拓 地	萬町步	10	30(ha)	30	—
穀 物	萬 t	1,000	1,500	1,500	84年1,000

註1) 84年の「機械加工品」이 90년에는 「織物」로 달라졌으므로 11個 品目이 되었음.

註2) 「84年 目標」는 74年の「次期計劃年度の 10大建設目標」, 「90年 目標」는 80年「1980年代의 10大展望 目標」

註3) 「88年 實績」은 89年 7月の 世界青年學生祝典時 外國記者에게 發表한 數置임. 여기에 나타난 數置 資料에 의하면 穀物을 除外하고는 第2次 7個年 計劃의 84年目標量에도 未達되었음에 주의.

II. 北韓經濟의 發展段階

1) 日本統治時代의 遺産

1930-40年代의 重化學工業化, 鐵道·電力 등의 構造物, 技術繼承

2) 1945解放時 설정된 스탈린型 社會主義 경제모델(基地 路線에 셋트) 重要産業國有化,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소련의 經濟·技術援助(日本の 技術者)

3) 韓國戰爭에 의한 經濟崩壞(1950-53)

工業生産高 64%, 電力 26%, 石炭 11%, 製鐵 10%, 農業生産高 76%로 低下, 南勞黨 대량 肅清

4) 1954-58年の 100% 社會主義 改造

農業·商工業의 100% 協同化, 個人所有·經營의 絶滅, 「計劃의 一元化·細部化」, 8월 宗派의 大肅清

5) 第1次 7個年計劃의 失敗와 3年延長(1961-70)

4大軍事路線, 68年の 軍事모험, 68-69年の 金日成 理論(1國共產主義, 經濟建設템포의 加速化), 主體思想의 唯一思想化, 甲山派·軍간부 肅清

6) 6個年 人民經濟發展 計劃의 蹉跌과 실제 1年延長(1971-77)

72年 南北對話와 73年の 「3大革命小組」(金正日), 74年 「次期計劃年度の 10大 建設目標」, 75年 8月 早期達成 發表

7) 第2次 7個年計劃의 蹉跌과 실제 2年延長(1978-84)

80년 第6次 黨大會 「80年代의 10大 展望目標」, 記念碑的 大建造物 建設, 「80年代 速度創造運動」, 「4大 自然改造 課題」 「非鐵金屬 150萬噸課題」 「化學工業·化學섬유增産·織物 15億m 課題」의 연발, 金正日의 主體思想

體系化·絶代化

8) 第3次 7個年計劃의 混迷(1987-現在)

서울 올림픽問題, 世界青年學生祝典開催, 記念碑的 大建造物 建設의 계속, 大規模 設備投資(順川비날론 聯合企業所 建設, 사리원 카리肥料工場건설, 金策 製鐵聯合企業所 확장 등), 「科學技術 3個年計劃」 「消費物資 增産計劃」의 追加, 88-89年の 經濟과탄과 人民生活의 고난, 世界青年學生祝典 후의 混迷

Ⅲ. 北韓公式 統計 數置의 特徵

- 1) 모든것을 倍數, 퍼센트數로 發表. 이것은 基準指標가 확정되지 않으면 無意味함(調整期)
- 2) 1966年以來 체계적 數字의 발표중지, 무작위적으로 諮意的 숫자만 發表
- 3)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特有한 과장된 報告(연쇄적으로 팽창)
- 4) 橫的 連帶의 결여에 의한 損失(生産—引渡—輸送—貯藏—流通—供給—消費)
- 5) 設備의 노후화, 特別鐵道(레일, 침목), 發電·送電·變電, 기존工場 設備
- 6) 設備能力建設과 生産實績과의 意識的 混同, 建設數字의 生産實績 數字로 의 編入?
—이 結果 모든 公表數字는 다 엉망이 되어 버렸음. 例, 84年 穀物 1,000 萬톤, 1人當 國民所得 2,530 \$ 等 거짓말이 限界에 達하고 있음.